

월간 증현

'79 **5**월호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이 5월에 있고 아버지가 주일도 5월에 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에는 스승의 날도 이 5월에 있었다.

특히 금년 5월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은 달이다. 그것은 금년이 세계 어린이의 해이기 때문이다. 1959년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후 이를 전세계에 선포한 지 금년이 그 20년째 되는 해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여러가지 기념행사와 발표회, 전시회, 체육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고, 교육학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발달(development)이나 성장(maturation)이 급속하고 현저한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 인간의 지능발달이나 성격형성이나 정서발달 등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교육은 그 어느 기간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영아부 교육의 중요성,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들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나라의 꽃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가 어린이답지 아니하고 어른스러운 것은 정상(normal)이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라나야 한다. 아름답게 그리고 씩씩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모와 교사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다. 환경(environment)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어린이들은 가정의 경험 곧 부모의 생활태도와 습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험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학습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우리나라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어

머니(Working Mother)가 많이 있음을 본다.언젠가 꽤 오래 전에 어떤 교육잡지를 통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 슬하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가정어머니 즉 가정에서 모유로 자녀를 키우며 돌보는 어머니 슬하의 자녀들 간의 행동특성을 조사 비교한 글을 본적이 있다. 어머니가 어린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 보면서 모세의 어린시절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여 보게 된다. 또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정성과 그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면을 살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기도 한다. 지금도 역시 그들의 자녀교육은 철저하다고 하는 것이다. 신 6:7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웠을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철학인 것이다. 그들의 가정은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한 가정이고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교육을 어린 유아 시기부터 시킨다고 하는 것을 읽어 보고 또 들어 보게 되는 것이다.

딤후 3:15에 사도바울 선생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암았다”고 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 부터 내려온 것이다.’

(딤후 1:5)라고 하였던 것이다.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로이스와 같은 그리고 유니게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네 자녀를 바로 키우라” 이는 5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차 례 *

제 7 권 제65호 월간 충현

권 두 언 가정의 달을 맞아	주 간 · 2
이달의말씀 축복을 하는 부모가 됩시다	김창인 · 4
지상 특강 어린이 앞에서 자아를 발견하자	박종구 · 6

□ 특집 / 가정의 달에 □

어린이-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은표 · 10
어린이를 대하면서	김의철 · 광도윤 · 최 규 · 박건순 · 16
성경과 인구문제	이진희 · 장선애 · 홍화옥 · 김하진 · 20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 24
어린이 날에 띄우는 우리들의 편지	김은경 · 오은영 · 최은영 · 박은영 · 이은정 · 김일환 · 박선아 · 김원진 · 26

편집실칼럼 새 가정 운동	오태웅 · 28
찬송가감상 예수가 거느리시니	김중석 · 28
도서 정보 4월중 구입한 도서	도서실 · 29
책 소개 어린이의 성격과 체질은 고칠수있다	이양우 · 29
이달에 만난 사람 주 애굽선교사 이연호 목사	편집실 · 30
독자의글 물	조현명 · 32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 · 34
성경통신 4월호 성경통신 모범답안	성경학원 · 38
구역소식 4월중 새교우 · 결혼 · 별세명단	편집실 · 38
구역장수첩 예배모범 (2)	김재창 · 39
구역공과 제 21 · 22과	이성봉 · 36
주교소식	· 40
교회소식	· 42
이렇게답한다 기도원에서는 어떻게	한영철 · 47
5월의행사	· 46
편집 후기	· 46
실로암돗가에서 어린이날에 아파에게 띄우는 편지	· 48

표지설명 :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를 생각한다고, 위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대했는지? 지난 3월28일에 있었던 유치부 주간 성경학교 개교시 예배를 마칠 후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어린이와 일일히 악수하고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주께
사랑하와
이다

시편 124:1-2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성경 엡 6 : 4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축복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나라가 생각하고 세계가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먼저 똑바로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린 자식들을 진리 안에서 바로 키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세상에는 빛을 비추고 후세대에는 복을 물려 주는 입적을 쌓으면서 천국을 숨쉬는 우리 중현교회 성도와 개인이 되고 가정 가정이 되도록 먼저 축복을 합니다.

1. 예수님은 어린 생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생명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살펴봅시다. 한번은 많은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교훈을 듣는데 어떤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고마우신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물리쳤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어린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물리지 말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들 하나 하나에게 축복기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번은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선생님, '세상에서는 돈 많고 세력 좋은 사람이 잘났다고 뽐내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나 불러 놓더니 너희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천국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무서운 결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어린이의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연자뱃물을 목에다 매고 깊은 바다에 풍덩 떨어지라고 하시면서 어린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 평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어른의 영혼보다 더

끝만치도 가뻛이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즉 어린 생명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생명의 소유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맡아서 키우는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2.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어린 생명을 맡아 키우는 부모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책임은 한마디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몸을 키워주고, 지식을 키워주고, 기술을 키워주고, 인격을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한 음식을 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욕되는 돈, 나라를 팔아 먹은 돈, 남이 가슴치는 돈으로 아들 딸을 먹이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 독약을 섞어 먹인다는 말이고, 위생에 좋은 옷이 아니라 무서운 병균이 묻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을 바로 키워 줘야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부모가 굶으면서 아들, 딸 교육시키려는 것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식을 먼저 키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 줘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성경 지식을 기초로 하고 세상 지식을 배워서 이용하게 되면 겸손한 실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세상의 지식만 배워서 세상 지식에 포로가 되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은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들, 딸을 키울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키워 줘야 합니다.

3.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육대인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때는 뚜렷한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가 태어난 첫날부터 아기가 자려고 할 때 자장가 대신에 십계명을 읽

어 줍니다. 깨끗한 흰종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기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책임감을 갖도록 해 줍니다. 어디에서든지 책임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협동정신을 키워줍니다. 형제끼리 친구끼리 힘을 모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합부로 쓰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섯째는 너희는 천대 받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가든지 대접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 중에 판, 검사, 변호사, 의사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키워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키워 줘야 하겠습니다. 둘째 인생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배워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가든지 뭉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남한테 천대 받지 말라는 정신을 넣어 주며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생명을 무시하지 맙시다. 내 아들 딸을 무시하며 억압하지 맙시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에 강한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이 어린 자식에게 지나친 강압을 하면 꺾어 구부러 지던가 낙심해서 타락을 하던가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사과나무를 키우듯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사과나무를 심을 때 두루과고 돌을 제하고 부드러운 흙을 넣고 사과나무를 심은 후에는 적당한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이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적당한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사과나무 주위에 돌아나는 잡된 풀을 사정없이 뽑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자라날 때 손에 드는 책을 꼭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책을 보는데서 어린 생명의 인격의 방향이 굳어집니다. 불 만한 책, 인격에 영향을 주고 인격에 힘이 될 만한 책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또한 나쁜 친구를 하나 하나 끊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열매를 못 맺을 가지 잘라 버리듯이 어린이들이 자라날 때 나쁜 성격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아픈 것을 끊어 주면서 지혜롭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넷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때를 따라 소독하듯이 아들, 딸을 키우는 사람은 때를 따라 아들, 딸의 생활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내 아들 딸을 축복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돈, 재산을 물려 주는 것보다

축복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첫째로 실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여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자량은 실력이고 늙은 사람의 자량은 업적입니다. 건강한 몸, 지혜, 유익한 생활, 믿음을 갖춘 실력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공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꽃을 보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고 합니다. 즉 지식은 배워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느냐 또 돈을 벌어서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성공자와 실패자를 구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나무를 잘못 키우면 열매가 없고 아들 딸을 잘못 키우면 속만 썩다가 죽습니다. 아들 딸을 잘 키우면 나라의 충신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이여! 내 아들 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하면서 키웁시다. 태어난 첫 시간부터 성경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집은 기춧돌이 요긴합니다. 어린 생명을 잘못 키워 놓으면 어른된 다음에 가슴치고 후회해도 회복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생명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해 주다 떨어뜨린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 방울의 눈물은 큰 다음에 백대의 매보다 천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깊숙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은 부모님이 하는 일을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 습관이 사건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현교회는 어린 생명을 축복하면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라의 장래에 복받을 수 있고 우리 자손이 복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방송설교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실황

-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

야세아방송 1566 KHz

매주일 저녁 7시15분부터

어린이 앞에서 자아를 발견하자

박 종 구 장 로

(아동문학가)

* 세계 아동의 해에 즈음하여 *

두번째 납치당했던 정효주양(부산 남성국민학교 3학년)이 다시 돌아왔다.

TV에 나오는 효주양의 모습은 공포에 질린 채 시종 입을 다물고 있었다. 피곤하고 귀찮은 표정이다. 무질서하게 던지는 기자들의 질문과 질세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녹음기와 마이크를 들이대는 어른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나는 효주양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보았다.

어린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뻔뻔스런 모습을 보았다.

납치를 하려면야 어디 효주양만 있겠는가? 우리나라 어느 골목 어느 학교 앞에서도 어린이 하나쯤이야 손쉽게 납치할 수 있다. 끈장을 잡기보다 더 쉽게 납치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다.

효주양의 경우를 보라. 밝은 아침에 많은 사람이보는 가운데 승용차 트렁크에 우겨넣고 버젓이 달려가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 자동차는 도로에 바퀴를 굴리지 않고도 시내를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요술 자동차인지 공상과학 만화인지 분간이 어렵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 어른들의 모습이 한없이 민망스럽다.

범인들은 돈과 효주를 바꾸자고 했다. 자신들의 흉칙한 목적을 위해서 어린이를 악용하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소름이 끼쳤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용될 수 없는 어린이를 오늘의 어른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얼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또한 어린이의 요구를 묵살해 버린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밥을 달라고 요구하자 범인들은 거절했다. 변소에 보내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다.

사회경험이라는 것 가지고, 육체적인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그 무기로 당연하고 절실한 인간의 요구가 어른에 의해서 묵살 당하는, 좌절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무 테이프로 눈과 입을 봉한 것은 무엇을 뜻하

는가?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무서운 피물의 모습에 경악하지 않는가?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게 어찌 그 범인뿐이겠는가?

또 있다.

깜깜한 밤, 어린이를 눈을 가린 채 숲속에 버린 어른의 모습이다.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나 귀찮아질 때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동댕이 친다. 그것도 눈을 가린 채, 어둠의 지역에, 길도 없는 곳에 생명을 버린 어른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어둠의 지역을 어떻게 통과 할 수 있겠는가? 설령 통과한다고 하자. 그 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효주양의 경우를 보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다.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쉴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관심을 돌린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첫번째는 속아넘어갔고 두번째는 자신이 납치 당한 사실을 알면서 자루 속에 갇혀 끌려다니지 않았는가? 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이 이 어린이의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1979년은 국제연합이 설정한 「세계 아동의 해」이다.

지구상에 있는 13억의 어린이를 위해서 온 세계가 어린이를 위한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제한 행사가 만발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손에 파자봉지를 들려주고, 고궁을 구경 시키고, 장난감을 사주고, 때때옷을 입히고, 칼라사진을 찍어주는 것으로 어른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일까?

어린이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

어린이들은 예수제로 물려왔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가로막았다. 꾸중을 하고 호통을 치고 밀어제쳤는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오는 생명들을 가로막지 말라고 선포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린이들을 가로 막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교회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궁색한 변명에 앞서서 우리의 참 모습을 비쳐볼 때가 온 것 같다.

해방후 교회교육은 허기진 배에 탁치는대로 먹어치웠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어린이 교육에 대해 우선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요리사가 없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면으로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런 틀에 의하여 교육분야도 많은 자료가 개발되고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자료나 요리책의 이론만이 만능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회교육을 들먹이던 분들이 어설픈 신학이론으로 강요해 왔을 뿐 그 이론과 자료를 어린이의 식성에 맞게 요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을 이해하는 데는 심리학 교과서에만 익혔지 그 이전의 것, 또는 그 이상의 것은 놓치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식료품이라도 그것이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으로 먹히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지닌 요리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식료품 장사는 더러 있었다. 외국것도 부지런히 수입하고, 또 현장에서 익힌 자료도 우직하게 제공하고, 극성스런 출판인이나 우후죽순의 식료품상이 번거롭기도 했다.

그러나 좋은 요리사가 없는 우리 교계 교육풍토는 교회 어린이로 하여금 소화불량, 편식, 성인화, 때로는 불량식품으로 위장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지점에 와 있는 듯 하다.



둘째는 주방시설이 엉망이다.

좋은 요리사가 없는 주방은 그 위생시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무대, 환경, 교육 보조재료 등이 너무도 무관심 속에 찌들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가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던 그때의 시골교회에서 창호지에 쓴 찬송가를 패도에 달아놓고 풍금에 맞춰서 부르던 기억이 생생하다. 35년이 지난 오늘 도심지 교회에도 창호지에 쓴 가사를 보고 찬송을 배우는 유년주일학교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35년간의 주방시설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입증이다.

우리는 교회의 예산편성에서도,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근거한 인쇄물들에서도, 성인 중심의 교육관 시설에서도, 성경본문과 제목만을 참고하는데 그친 공과에서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의 취약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세째는 근시안들의 횡포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어린이 교육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한해의 행사계획표 정도로 체면을 유지하려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종합계획 중에 포함된 장기계획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린이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거친 청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다. 상설 연구기관이 있어서 매년 평가를 거쳐서 보완하고 연구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표될 수 있는 이론이 있는가 말이다.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고 해도 가까운 20~30년 후면 지금 어린이들은 교회의 중진이요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된다. 그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묘하게도 한국교회에는 이 근시안들의 세도가 당당하다. 그리고 행동을 수반한 실득력도 달콤해서 많은

사람이 이에 전염되고 있는 듯하다.

미래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면 이상론이라고 몰아세우고 발등에 불부터 끄자고 한다. 일제를 겪고, 동란을 겪고, 물질 산업문명의 격류에 휩쓸리다 보니 근시안의 출속한 당황이 파생되었으리란 짐작은 가지만 말이다.

「미래가 보이는 창」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어야 할 것 같다. 어린이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일차원적인 의식구조에서 탈출해야 할 때다. 우리는 어린이 앞에서 어린이에게 비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열리게 될 내일예의 주인공을 향해 부끄럽지 않는 대화자로 낮아져야겠다.

5월만 되면 생각나는 위즈워드의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 구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싶다. 위즈워드의 말을 전제한다면 어른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린이이다. 자신의 부속물로 강요해 온 어른은 이제는 어린이를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혁명이 있어야겠다. 일찌기 예수께서는 어린이를 안으시고 어른들에게 경고했다. 어린이를 닮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어린이를 닮기 위해 그 앞에서 겸손해야겠다.

* 주여, 속히 허락하소서 *

지난 달에 필자는 아세아방송에 나가 어린이 해에 즈음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아나운서가 필자에게 올해의 계획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나는 두가지로 대답했다.

하나는 아동문학가로서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게 첫째 사명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아동선교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했다.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아동선교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본다면 우선 연건평 500평 정도의 5층 건물에서 출발하고 싶다.

1층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시설을 하린다. 성지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배경으로 예수의 행적과 주요말씀을 소리와 입체그림으로 전시하고자 한다. 성지순례와 기독교 박물관의 구실도 겸하도록 한다.

2층은 선교관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재현시키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활동상황을 자상하게 볼 수 있게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슬라이드로 선교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어린이로 하여금 선교소명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회도 준다.

3층은 영화관으로 순교영화와 선교영화 그리고 기독교 영화를 계속 상영토록 하겠다. 국내에서 제작한 교회 어린이 영화나 연극도 공연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상영이나 공연이 없을 때는 예배실로서 어린이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층은 성경관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형성사를 비롯하여 주요사건을 선정, 움직이는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꾸민다.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자시설을 한다.

5층은 도서실로 언제든지 어린이 기독교서적을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구입, 배치한다. 악서를 금하기보다 양서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 독후감도 쓰도록 해서 간접적인 신앙고백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옥상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창조관을 두어서 우주와 창조과정을 보게 한다. 광활한 거시 현상을 통한 미래의 비전을 확산시킨다.

지하실에는 지옥을 연상케 한 각종 시설을 해서 죄의 형벌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극적요소를 강조해서 시설한다.

이와같은 아동선교관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퍼나갈 사업이 있다.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는 일이다. 교회 어린이들에게 신앙인격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꿈과 용기와 슬기와 지혜를 자라게 할 어린이 잡지를 정기간행물로 발행하는 일이다.

어린이를 위한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프로젝트, 아동전도지 제작, 반포 등의 매스컴 전도를 병행할 수 있다.

교사잡지를 발행하고 교사를 육성하고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현대교육의 연구와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

년 1회 정도 교회 어린이 큰 잔치를 베풀고 기독교문화의 다양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한다. 또한 기독교 아동문학 대상을 마련하여 역량있는 문학작품을 발굴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장점을 구심점으로 어린이 선교문고를 출판하는 한편 어린이 성경을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 반포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필자는 이 사업이 뜻 있는 분들의 참여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세계 어린이 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 특집 / 가정의 달에 *

- 어린이 -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 10
- 어린이를 대하면서..... · 16
- 성경과 인구문제..... · 20
-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 24
- 어린이날에 띄우는 우리들의 편지..... · 26



어린이 -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초등부 전체 학생심방 결과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정 은 표 집사

(교육위원회위원)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가정의 꽃인 어린이...○
○...날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알고 있는가? 무관...○
○...심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무관심...○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만...○
○...로는 부족하다. 효과적인 행동이 수반 되어야 한다. 어...○
○...린이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여기 초등부 활동의...○
○...한 실례를 소개함으로 널리 알고자 한다. 우리교회 주...○
○...일학교 초등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인 1953년부터 매년 정...○
○...기적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심방을 실시하면서 파악되어...○
○...야 할 학생들의 상태에 관한 몇가지 조사항목을 미리 결...○
○...정하여 조사서를 만들고, 그 조사서에 따라 전체학생 심방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하는 일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보다 잘 이해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또 실제로도 큰 효과를 얻...○
○...고 있다고 한다. 그래 이를 주일학교 각부에 소개하며 권강할 목적으로 실례로 몇가지 조사항목을...○
○...들어 분석하여 보았다.

回이유는 분명하다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심방이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그 자체가 싱겁고 좀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하며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런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그자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족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대화속에 너무도 번번히 오르 내리는 학생 신앙생활지도에 대한 것은 교사 개개인의 견해로서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교사의 견해 보다는 학생 신앙생활문제에 관한 사실의 확인과 이해가 앞서야 된다고 본다.

문제는 학생 신앙생활에 대한 환경 내지는 개인의 특성등에 대한 사실의 확인 이전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학생에 대한 이해로 착각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이해하고자 하는 상대를 방문하여 찾아본다는 것은 말하자면 학생 신앙생활지도라는 일의 시작인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찾아가

만나보는 일에서 부터 시작 된다면 학생심방의 이유는 분명하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는 학생심방에 열심을 내는 모든 교사들이 교사와 학생의 진지한 만남이 학생 이해의 가장 빠른 길이며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한마디 꼭 덧붙인다면 학생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그리스도의 사랑속에 넓게 포용될 때 가능한 것이다.

回 학생이해를 위한 초등부의 노력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초등부 교사들만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면 그 누구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등부 교사들이 오랜동안 체계적으로 또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오고 있는 것이 우리교회 주일학교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가 문제되는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지도의 연장으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더욱 더 유용하다고 본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하여는 학생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환경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학생을 이해하고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사의 행동결정에 사실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가장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법이 창출될 수 있어야 되겠고 실행한 결과 그 효과의 정도를 교사가 또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집단으로서의 전체 학생에 대한 유형적으로 각 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파악과 이해가 뒤따라야 만이 개개 학생에 세워질 수 있고 동시에 전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도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초등부도 아직은 집단으로서의 학생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어느 부(部)보다도 전체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미흡한대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제 2차적인 개별 조사에 착수한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학생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回 초등부가 실시하여 온 조사방법

초등부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 실시하여 오고 있는 전체학생심방 기간중 학생들에 한 신앙 생활 여건이라든가 상태등을 사전에 작성된 몇가지 질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오고 있다.

1973년 2월 1일까지 실시된 전체학생심방결과를 『1973년 2월 일제심방- 그 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최초로 결과보고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목적·방법·집계분석 등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목적—1973년 새해를 맞아 교사도 어린이도 모두가 새 얼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로를 알아 이해 하게됨으로써 교사는 각개 어린이의 적성과 환경에 적합 지도방침을 세우며 이를 실시하여 주님 앞에 교사로서 성공적인 헌신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방법—예년과는 달리 심방결과 확인 되어야 할 사항들을 8개항목(28개 세목)으로 구분하여서 「심방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반 담임이 담당하여 반 어린이 전원의 가정을 심방하고 심방결과에 따라서 각개 어린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학년과장이 이를 반별로 수집하고 교무처장이 이를 총괄하였습니다.

〔참고〕 8개 조사항목

1. 가족신앙생활
2. 교회직책관계
3. 가정의 교회에 대한 반응
4. 어린이의 신앙생활
5. 교회 올 때의 거리
6. 생활정도
7. 학습생활
8. 기타

○집계·분석—학년별로 집계된 「심방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심방과는 이를 항목별로 집계, 분류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모든 집계표나 도표는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석에 따르는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또한 간략하게 요점만을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참고삼아 각개 교사는 물론 특별히 학년 단위로 이후 어린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과 생활지도 방침의 참고사항으로 유의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과(課) 운영을 기함으로 초등부 주교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금번 일제심방을 실시하여 집계, 분석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집 / 학생 신앙생활지도를 위한 방법제시

학생심방 결과를 기록한다는 데 있어서는 별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점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학생심방결과를 학생생활기록보고부나 아니면 다른 적당한 곳에 간략하게 기록하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이며 현재로 학생 개개인의 신앙생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만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가장 큰 약점은 제기 된 어떤 문제점에 관해 한 집단으로서의 전체 학생에 대한 문제점의 깊이 정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학생문제에 관해 확실성 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항상 몇 사람의 주관이나 육감에 치우친 막연한 방법 밖에는 제시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초등부는 처음으로 개개인의 조사 기록과 함께 전체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조사 된 내용들은 모든 교사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계하여 도표로 나타내 주고 아울러 급소를 지적한 요약 된 분석을 하여 줌으로써 안개에 가리운듯 희미한 추측속에 있던 문제들이 수치화되어 구체적으로 제 모습을 들여왔다.

즉 초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연구가 목적이 아닌 실제 학생 신앙생활지도를 위해 통계적 방법이 이용되기 시작한 점이다.

세째, 올해도 실시되었지만 전체학생심방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초등부 전체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이다.

이 자리에서 심방 기간중 가장 감명 깊었던 체험들을 몇몇 교사의 간증을 통해 듣기도하며 아울러 초등부 교사 전체가 공통 된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됨으로서 교사의 이해와 협조가 보다 증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 조사항목별 분석의 몇가지 실례

그러면 이제 그간 초등부가 실시하여 온 전체학생심방 조사 결과를 어떻게 집계·분석하였는지 진행 순서대로 하나 하나 차례로 보기를 들어 설명을 하여 보겠다.

보기① 초등부 봄 전체학생심방개요 ※1979년

1. 심방기간 : 1979. 2. 4~3. 4
2. 심방대상 : 초등부 전체어린이 (총 44개 반)
3. 심방비용 : 28,800원 (9,600원×3개 학급)
4. 전체 학생심방결과 기록표 제출현황

구분	계	4과	5과	6과	구분	계	4과	5과	6과
제적수	561	178	192	191	학급수	44	14	15	15
심방수	521	173	161	187	심방수	42	14	13	15
미심방수	40	5	31	4	미심방수	2	0	2	0
%	93	97	84	98	%	63	100	86	100
전년도%	51	63	73	64	전년도%	64	53	65	61

보기② 전체학생 심방 결과 기록표

*지면 관계상 생략

보기③ 조사 항목별 집계·분석

*아래에 예를 든 조사 항목들은 1979년 실시한 것이며 여기에 나타난 모든 수치들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7년에 걸쳐 초등부 어린이 2528명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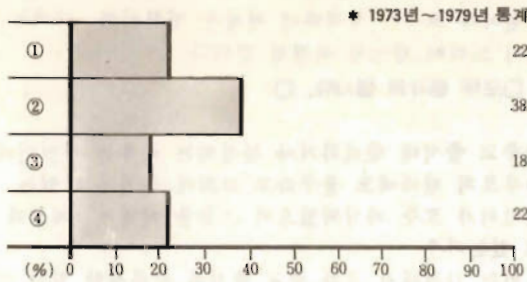
〈설문 1〉 가정의 신앙정도

- ① 아무도 안 믿는다.
- ② 온 가족이 믿는다.
- ③ 어른 중에 믿는 분이 있다.
- ④ 형제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

가. 집계표

세목 구분 학년	①				②				③				④			
	응답	보고	%		응답	보고	%		응답	보고	%		응답	보고	%	
4	23	86	27	23	86	27	20	86	23	19	86	22				
5	23	90	26	34	90	38	19	20	22	13	90	15				
6	19	102	18	38	102	37	20	102	20	17	102	17				
찬양	2	21	10	10	21	48	5	21	23	7	21	33				
계	67	299	22	105	299	35	64	299	21	56	299	19				

나. 도표



어린이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지도가 교회·가정·학교 등 3자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가정이 믿는 가정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온 가족이 믿는다고 한 어린이는 전체의 38%로서 1/2정도이며 어른중 믿는 분이 있다고 한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면 56%로서 어린이 2명중 1명 꼴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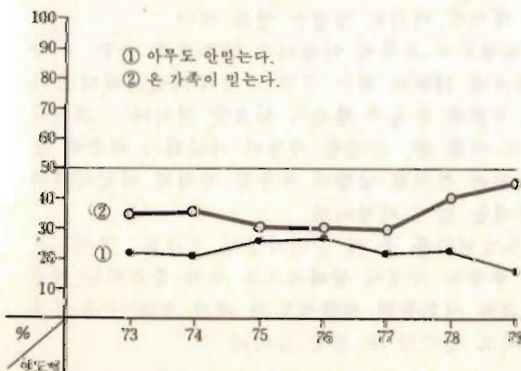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불신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약 반수 가량의 44% 어린이에 대하여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교회에 나오는 형제 조차 없이 오직 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약 1/4가까이 되는 어린이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어린이에게 다 적용되겠지만 특히 불신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어려움을 교사들이 파악하여 돌봄으로서 이들에게 있어서 담임교사야말로 신앙의 동지요, 형제요,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모두 생각해 봅시다 ㉢

• 우리반에는 불신가정의 어린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 불신가정의 어린이 문제점과 믿는 가정의 어린이 문제점은 어떻게 다른가?

참고 가정 신앙정도 - 연도별변화(1973~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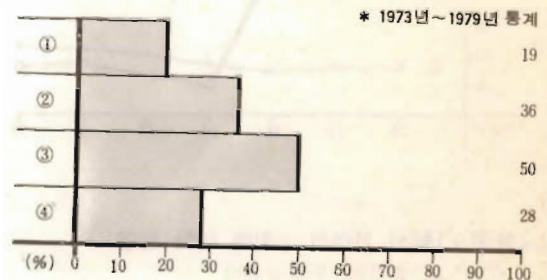


<설문 2> 어린이의 신앙생활

- 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 ②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 ③ 식사 때마다 기도를 드린다.
- ④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 해본 일이 있다.

가. 집계별 - 생략

나. 도표



다. 분석

말씀·기도·전도의 생활이 어린이라고 하여 크게 고려될 수 없다고 본다. 나타난 수치로만 볼 때 어린이들의 실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치 보다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 성경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불과 15%인데 비해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64%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중 불과 1/4정도만 성경을 읽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식사 때마다 기도를 드린다는 어린이가 불과 50%정도로 그저 수저를 들자마자 밥을 먹는 어린이가 상당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주교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그렇게 된 것만도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비취지는 어른들의 신앙생활 태도의 결과로 보고 싶다. <설문1-가정신앙정도>와 연관지어 볼 때 온 가족이 믿는다고 한 어린이가 38%인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 어린이는 그의 꼭 1/2로서 19%이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어린이는 성경을 읽고 있는 수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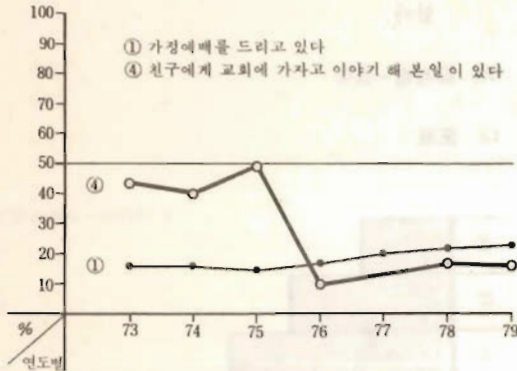
㉢ 모두 생각해 봅시다 ㉢

• 교사로서 또는 부모로서 말씀, 기도, 전도생활에 있어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특집 / 학생 신앙 생활지도를 위한 방법제시

• 왜 성경을 읽기 싫어하며 왜 식사 때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어린이들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들어 본 일이 있는가?

【참고】 어린이의 신앙생활-연도별변화(1973~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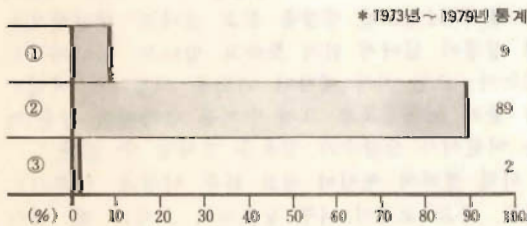


《설문 3》불신 가정의 교회에 대한 반응

- ① 주교 출석에 무관심하다.
- ② 주교 출석에 찬성한다.
- ③ 주교 출석에 반대한다.

가. 집계표-생략

나. 도표



다. 분석

조사된 결과로는 불신가정이라 하여도 어린이의 주교 출석에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에 나오고 있는 어린이가 2%로서 극소수라고는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반대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무관심한 가정을 더한다면 10%가 넘는 상당 수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는 물론 가정심방 기회에 가족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불신가정이기 때문에 주교 출석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처럼 인식하기 보다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관심을 찬성으로, 찬성을 가정 전도로 어린이와 교사가 협력하여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도리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모두 생각해 봅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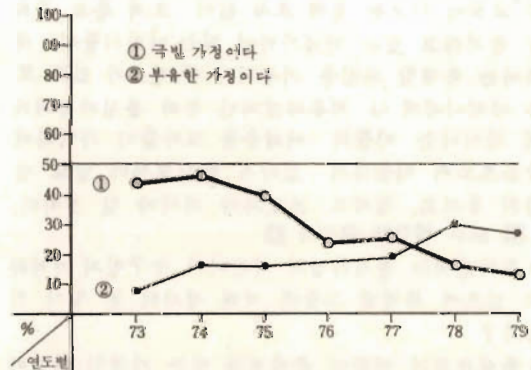
- 주교 출석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가 모두 파악되었으며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 믿는 가정에서조차 주교 출석에 무관심한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설문 4》어린이의 생활정도

- ① 극빈 가정이다.
- ② 보통이다.
- ③ 부유한 가정이다.

가. 집계표-생략

나. 도표-어린이 생활정도 연도별 변화(1973~1979년)



다. 분석

가정생활의 가난함과 부유함이 어린이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생활정도가 보통인 어린이가 65%로서 반수 이상이 되지만 14%나 되는 극빈 가정의 어린이에게 보다 더한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양상이 다를 뿐, 가난한 가정이 가난하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달리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에게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연도별변화를 볼 때 극빈가정이 점차로 줄어드는 반면 부유한 가정이 상대적으로 점차 증가되는 것은 우리교회 성도들의 생활정도가 해가 흐를수록 부유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생각해 봅시다. □

● 특별히 생활정도가 낮은 어린이들이 가난과 무지로 부터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

●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성격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상으로 조사항목의 예를 들어 생각하여 보았으나 우리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석관계(낮, 저녁), 현금, 장기결석자처리 문제등은 보다 더 충실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回 문제발견 후의 문제와 제언

『자식은 아버지를 닮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스승을 닮기 마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점은 들춰낼 때마다 그것은 곧 교사인 우리들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 같아 괴롭기 그지 없다. 그러나 뼈를 짚는 듯한 진통과 고통이 없이는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날카로운 매스를 가함이 없이 어찌 환부가 치유되기를 기대하랴!』

이같이 우리는 이번 일제심방을 통하여 어린이지도에 있어 너무도 안타까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또다시 마음 속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매번 지적되면서도 아직도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린이 신앙생활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문제와 극빈아동의 구제와 지도문제, 예배태도문제, 저녁출석문제, 불신가정의 어린이 지도문제, 점차 성경 읽기를 멀리하는 경향등 새로운 문제도 이번엔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요원하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느정도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어린이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평소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믿는 바대로 행하는 실천적 신앙인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어린이 지도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이 이번 심방의 큰 성과였다고 본다.

앞으로 이같은 뜻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만족스런 열매를 기대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교사직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우리 인간본연의 의무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도록 전심전력으로 다하였야 되겠다.]

이것은 1974년 전체학생심방 결과보고서의 「결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몇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교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심방결과조서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 연령층에 적합토록 몇가지로 작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7년에 걸쳐 조사된 자료들을 일관하여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할 때 해마다 조금씩 조사항목이 변경되고, 통계처리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장기간 조사된 자료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었다. 조사항목과 함께 통계적 처리방법도 반드시 통일되어야 되겠다.

3.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문제발견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남게 될 뿐이다.

回 맺음말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는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쉽게 일을 벌려도 끝맺음이 회미한 것이 이제까지의 통례였다. 초등부의 전체학생심방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하여 보려한 것은 시작한 일의 끝맺음을 잘해보았으면 하는 생각과 주교 전체가 실시하였으면 하는 뜻에서였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주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역시 무엇이 문제이 중요한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통계적방법을 운영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며 여기에서 적은 내용중 하나라도 단순히 인간적인 우애함으로 주님의 뜻과 상치된다면 이 또한 바로 깨달아 주님과 교회 앞에 유익된 결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램 뿐이다(*)

교회성경암송대회

일시 : 1979. 5. 27 오후 3시 ~ 6시

장소 : 본교회

대상 : 본교회 전교인

암송범위 : 마태복음 5장 ~ 7장 (총 111절)

1. 영아부	5:3~10	(8절)
2. 유치부(꽃방)	5:1~13	(13절)
3. 유치부(영매반)	5:1~16	(16절)
4. 초등부(1.2학년)	5:1~27	(27절)
5. 초등부(3학년)	5:1~33	(33절)
6. 초등부	5:1~48	(48절)
7. 중등부	5:1~6:34	(82절)
8. 고등부~장년부	5:1~7:29	(111절)
9. 노년부	5:1~48	(48절)
* 영어암송 회망자	5:1~48	(48절)

실시요령 : 지정된 성경범위를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을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회장 김창인

*특집 / 어린이를 대하면서 *

1979년을 UN에서는 '어린이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이 말은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을 바로 대해 보자는 뜻이라고 본다. 5월은 푸르다. 소망의 달이다. 한국 통일의 소망도 세계 인류의 소망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새싹같이 커가는 이들을 올바르게 대할 때 무한히 뻗어가는 희망이 있으리라 믿는다.



많은 것을 배우게 돼

김 의 철장로
(유치부 부장)

얼마 전 나는 시내 W음식점에서 교제지도자 한분과 문인(文人)이신 K선생과 셋이 정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K선생이 "김창로님은 무슨 학문을 전공(專攻) 하십니까?"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런 때는 아무것도 전공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겸손은 될지 모르나 소위 기독교의 장로가 연구하는 전공과목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남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학문의 권위는 둘째 문제로 치고 어떤 태도로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느냐가 K선생의 질문 요점인 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예/ 한국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1959년 5월에 창립했고 정부의 국토통일원 간사단체로서 한국통일문제 연구소에서 역대 통일원 장관만 두 분이 되셨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더니 K선생은 "참 좋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 통일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들을 잘 교육 시켜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한국 통일을 한번 기대해볼 일이라고 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나는 그 말을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북지로 향해 갈 때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다 결국은 다 쓰러져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물들지 않은 제2세 국민만이 가나안 북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던가.....

오늘날 기성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이 불합격이 되지 못할 일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과 이제 자라나는 어린

이들에게 기대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보았다.

나는 유치부 부장으로서 어린이들을 대할 때 어른으로서 그들을 <보호한다>(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대할 자격은 별로 없을 지 모르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음을 반성(反省)하게 된다.

순결하고 순진하여 티없이 맑은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좋아졌다. 한주간 동안 내 마음과 몸은 서울의 공해(公害)와 함께 때문었는지 모르나 유치부 어린이의 깨끗한 모습을 대할 때 다시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듯하다.

1979년을 UN에서는 "세계 어린이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이 말은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을 바로 대해 보자는 뜻이라고 본다. 5월은 푸르다. 소망의 달이다. 한국 통일의 소망도 세계 인류의 소망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새싹같이 커가는 이들을 올바르게 대할 때 무한히 뻗어가는 희망이 있으리라 믿는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면에 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 저들이 장차 자라면 교회의 기둥이요, 나라의 그릇들 일테니 어린이를 보는 눈이 두렵고 한편 든든하다.



하루에 2 번씩 기도하며

박 도 윤
(유년부 교사)

5월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대우(?)받는 달이다. 나는 저 어린 생명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두려움마저 느낀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는 각자의 인격으로 생각할 때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옷깃이 여며진다.

저 생명들이 장차 자라서 여러가지 삶을 살텐데 과연 교사된 내가 어린 싹들에게 어떤 거름을 주어야 될 것인지 늘 생각해 한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교육은 여러 교육중에 가장 근본적이라고 말할하고 있지 않은가? 일반 교육에서는 교사의 삶이 많을 때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발 앞서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교육은 말씀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니 얼마나 이상적인가.....

더구나 오늘날 같이 교육의 홍수 속에서 도리어 정

신적인 빈곤과 이기적인 인격들로 자라는 생명들이 많으니 걱정이다. 바울선생은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고상하고 귀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깨에 무거움마저 느끼면서도 내 삶이 교사이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로 일한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면에 충수 있으려면 충분히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다. 저들이 장차 자라면 교회의 기둥이요, 나라의 그릇들 일테니 어린이를 보는 눈이 두렵고 한편 마음 든든하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하루 2번씩 생활화 된 기도로서 내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어린 생명들과 인격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

또한 나의 부족을 위해 늘 책과 벗하여 탐독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교사로써 살기를 늘 기도해 오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씩씩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또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인간상으로 가르쳐 보자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특히 무엇이든지 알기를 원하고 행하고 싶은 충동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생동감 있는 생명체에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최대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최대로 도와주며

최 규

(유치부 교사)

생명은 어떠한 연령층이건 귀하다. 모든 어린이는 각자의 집에서 귀한 자녀이기에 계란을 손에 쥐듯이 조심스럽게 다루게 된다.

나에게 부여된 특권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기 업인 생명을 함부로 행할 때가 있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아이들이니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른을 대하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들면 어머니로부터 “너희 자랄 때 매맞고 자 랐냐?” 하시는 꾸지람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 잘 하 면서 컸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고 하 시면서 “아이들이 아니냐”고 일침을 주실 때는 우 리 아이들에게 깊은 곳에서부터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

그러나 요즘에 어린이는 배스콤의 영향으로 몸은 작지만 머리는 어른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영악없는 축소판인 것이다. 이들은 경험이 적은 뿐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어린이를 올바르게 키우기가 어려운 때이기에 더욱 어린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이든지 알기를 원하고 행하고 싶은 충동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생동감 있는 생명체에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최대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그래서 명령을 하기에 앞서 동정을 표시하고 강압하기 전에 이해시킬 수 있는 아량을 베풀 때 순종이 동반되며 역행함이 없이 순리 대로 이끌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들, 자녀들을 대하면서 바라는 것은 순진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경 안에서 살 수 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말이다.

모든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선한 것보다는 완전하지 못한 어른들의 실수하는 생활을 어린이들은 모든 감각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는 사람없이 그저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많은 경우가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아닌가.



급혀지는 활로서

박 건 순

(초등부 교사)

천국일꾼을 양성시키는 교사의 직분에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 이 세대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교사의 직을 맡고보니 더욱 실감이 나는 일이다. 매주일 2시간도 못되는 교회의 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선한 것보다는 완전하지 못한 어른들의 실수하는 생활을 어린이들은 모든 감각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는 사람없이 그저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많은 경우가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아닌가.

그러나 저들이 쉬지않고 매주일 성전으로 찾아나오는 분명 택한 백성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

* 특집 / 어린이를 대하면서 *

각해 보며 감사를 드린다. 이처럼 주님께서 맡겨 준 생명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옛 신앙인의 글이 생각난다.

자녀들이란
그대들을 통해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그대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대들에게 속한 것은 아닌 것.

그대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으니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 애쓸찌라도
자녀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말찌니
그들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활이고 자녀들은 화살과 같은 것
사수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누고 화살이 빠르고 멀리 가도록 활인 그대들을
힘껏 구부리신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부러짐을 기뻐할 것은 날
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활
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매주 만나는 어린이들 앞에 신앙의 선배로서, 어
버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더욱 더
굳혀지는 활로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대할 수 있
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늘 간구하면서

이 진 희
(초등부 교사)

항상 어린이를 대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마
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어
린이를 대할 때의 그 심정으로 나는 그들을 대하고
싶은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린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 그
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언어,
행동 하나 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그
들이 처해 있는 입장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모든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한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가 어떠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없
는지를 늘 생각하라고 이르고 있다.

우리의 생활이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감사·기쁨이 빠지고는 침
다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이 생활이 어릴 때
부터 몸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
능하기에 하나님께서 늘 간구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





주님께
이끄는

장 선 애
(유치부 부지도)

사실 4년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는 티하나 없어보는 아기들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두려웠고, 키가 크고 제법 의젓해 보이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는 위축감마저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린이의 옷을 입혀주면서 한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쁜동산의 타락 이후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게 된 옷을 이 어린이도 입어야 하며, 또 옷입는 가지수가 어른과 거의 같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뒤부터 나의 어린이를 보는 눈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천진난만하고 귀엽기만한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최 용서가 필요한 사랑임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 지식은 좋은 문화 시설과 개방된 사회에서 쉽게 얻은 피상적인 것이고 그들의 신체적 성숙은 그전보다 빨라졌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다.

신앙, 인격, 모든 실력면에서 어린이들의 귀감이 되는 어른이 되고 저 노력할 때마다 나는 깊은 회의와 의식 밖에는 얻는 결과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일은 광야의 소리인 세례요한과 같이 '보라' 하며 어린이들이 나의, 온 인류의 귀감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게끔 잘 이끌어주고 중간에 좌절하는 일 없이 소망을 주며 예수님을 만형으로 하는 형제지식을 갖고 그들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 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즐거이 걷고 싶다.

나의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로

홍 화 옥
(영아부 자모)

우리 아기의 이름은 "에스터"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역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운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엄마의 품을 잊지못한 채 어린티를 벗지 못하고,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기를 다루기에 서투른 엄마인 셈입니다. 처음 아기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순간의 놀라움이 지나고 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한 사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배위에 손을 올려놓고 아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배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 안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몸의 각 기관과 모든 기능이 온전히 자라고 발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아기의 머리에 밤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아기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 아기를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겨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기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단지 우리 가정속에서 양육 되도록 잠깐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근애근 숨소리를 내며 고요히 잠든 평화로운 얼굴, 아무런 걱정도 흠도없이 맑게 웃는 모습.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키울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는 동안 나는 성령께서 이 아기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잘 때나 놀 때에 찬송가를 들려 주면 아주 기뻐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는 아기도 평화롭게 하루를 보냅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가지면 아기도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날 때는 우리 아기도 성령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나는 아기와 함께 영아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어렵니다.



찬송을 부르기에 너무 어렵니다. 그러나 아기의 영혼은 성령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조그만 소리로 소근대며, 두개 밖에 없는 하얀 이를 보이며 천진하게 웃는 에스터를 보면서, 나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맡은 하나님의 딸임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과 인구문제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1. 서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질, 양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 해 왔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교회가 지닌 사명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관심에 관해서, 즉 생활 윤리에 관계된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 해 왔던 것이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현대문명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낳아 놓았다. 무엇보다도 생활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놀란만큼 급성장하는 인구문제는 인구폭발이라는 단어를 낳게 했을 뿐 아니라 각종 공해를 부산물로 남겼고, 이로 인한 질병문제 또한 고민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인구 폭발은 자원난과 더불어 식량문제가 제기되었고, 개인주의 사상양등과 폭동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계획 제도는 잘못된 이해와 실천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특히 산아제한에 있어서의 제반 실천 방법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로 보일 때도 없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스스로없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합구무언이며 바른 지도를 해 주지 못하고 있음은 펴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산아제한에 있어서의 제반 실천 방법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로 보일때도 없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면서 독자들과 같이 성서적인 교환을

얼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문제로 파급된 가족계획에 관한 성서적인 윤리가 지도 계몽되어 독자들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 인구증가 현황

1) 세계 인구 증가율 (1968년 통계에 준함)

이 지구상에는 약40억(현재 4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숫자는 한줄로 서서 달에 두번 왕복할 수 있는 것이며 지구 적도를 50바퀴 돌 수 있는 그 야말로 천문학적 순자다. 하루에 약20만명, 일년이면 7,000만명 이상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계속되면 앞으로 20년 후인 2,000년 초에는 현재 인구의 배인 80억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우리는 현재의 인구로도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즉 공기와 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고, 교통난, 주택난, 식량문제 등.....독자 여러분은 앞으로 20년후 현재 인구의 배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결과는 과연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왜 인구가 급증하는 것일까? 그 요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① 생물학적 요인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요인으로서, 출생하고 사망하는 현상에 의하여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연증가 (Natural Increase), 자연감소 (Natural Decrease)라 한다.

② 사회적 요인

이것은 인간의 인위적 요인으로서, 인구의 이동 (Migration)에 의한 것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은 이입 (Immigration) 과 이출 (Emigration)로 나누어 말할 수 있으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인구 증가 추세를 살펴 본다면 신석기 시대 (B. C. 6000년)의 인구를 500만명

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는 2억 5천만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던 것이 1650년에 가서야 두배가 되는 5억의 인구로 증가되었고 (선석기 시대 초기의 100배, 년 증가율 0.04%)

200년 후인 1850년에 10억, 80년 후인 1930년에 20억, 45년 후인 1975년에는 40억, 이제 35년 후인 2000년대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2500년대에는 도대체 얼마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까?

왜 초기의 인구 증가가 둔했으며 최근에는 왜 이렇게 급속도의 인구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그 둔화된 이유를 살펴 보자면, 첫째, 18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예방할 줄을 몰랐다.

또한 영양관리가 미흡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였고, 흑사병 (Black Death) 과 같은 무서운 병으로 많은 인구가 감소되었다. 그 당시에는 25%의 높은 사망률이었으나 오늘날 선진국의 사망률은 10%에 불과하다, (한국도 이와 비슷함)

둘째, 기근이다.

그 당시 출생아는 '둘이 되기 전에 거의 눈이상이 죽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아기를 많이 낳아야만 했다.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이 과잉 상태로 팽창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인간의 지식의 발달과 아울러 의학과 생산과학의 기능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과 동시에 자연적인 감소의 저하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토마스, 말사스 (Thomas Malthus, 1766-1834)의 말대로 기하 급수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구 증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수용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구가 최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추정은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70-150억의 수용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다면 앞으로 30년 내지 80년 후에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2) 한국의 인구증가 현황

우리나라 인구 성장 추세를 살펴 보면 해방 이전 남, 북한의 연 평균 증가율은 1.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불안과 6.25를 전후한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55-60년 사이에 2.9%란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고, 1960-66년 사이에는 2.7%로 약간 하락되었 그 이유는 1962년부터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강력하게 가족 계획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1970년도에는 약 2.0%로 많이 감소되었으며 현

재는 좀 더 하락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아직 연간 60만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1.0-0.6%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도시 집중 경향이다. 이것은 연 평균 17.5%로 세계 제일을 자랑한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940-50년 사이와 1950-60년 사이에 베이비 붐 (Baby Boom)을 타고 태어났던 출생아들이 1970-80년 대에는 20세 이상의 가임성의 청년들이 되므로 또 하나의 베이비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법을 따르고 육과정신이 함께 일체가 되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며 책임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혼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편에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가족 계획 참여 운동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특색은 후진국일수록 많은 0-14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전체 인구의 42.2%를 차지하게 되므로 무거운 부양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점이다. (1966년 통계) 같은 기간에 미국은 30.7%, 영국은 23.9%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인구 밀도를 보면 우리나라 처음 인구 「센서스」 (census)가 실시된 1925년 일제 당시 남, 북한 총 인구가 1천 9백 20만명으로 1km² 당 86명이었던 것이 1969년 말 318명 (1km² 당)으로 증가 되었다. 한편 인구문제연구소의 추세표에 의하면 1981년에는 395명의 높은 인구 밀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인구 밀도가 20명 (1km²) 인데 비해 1976년도 남한은 약 360명으로 남한의 적정 인구 수 1500만에 비하면 두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인구 증가 문제는 고면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구밀도의 측면에서 보면 1966년 당시 화란 371명, 자유 중국 356명, 벨기에 312명, 다음으로 한국은 296명, 세계 제 4위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영토 효율면에 있어서 산이 전체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세계 제 1위나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3. 성서에 나타난 결혼관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가족 계획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인공 임신 중절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바른 지도와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부부에게 올바른 순결 교육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이러한 사상이 우

리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동양 유·불교의 전통적 폐쇄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겠다. 이로 인하여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게 되었고, 또한 성서에 위반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합구무언 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기에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 행위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 해 봄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

1) 구약시대의 결혼관

①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부귀 다남이 결혼의 주된 목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 1:28)란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性)을 결혼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무제한으로 번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생식 기능의 결과를 축복으로 말씀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생육, 번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안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간창조 목적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② “네 씨로 크게 성(盛)하여”

다음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네 씨로 크게 성하여”(창22:17)란 말씀에 대해 전해는 당시 이스라엘의 특수한 형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영·육적 자손 번영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축복을 생(生)과 결혼의 최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당시 사회 풍습을 기초로 하여 다처의 가족관과 이로 인하여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그 사회에 조성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결혼의 최고 목적을 생육번영과 육체적 향락에 치우쳤다고 본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앙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후손 즉 오늘날 크리스찬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생육번성이 구약시대의 유일한 결혼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히 11:13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앙의 자손으로서 육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즉 오늘날 크리스찬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생육, 번성”이 구약 시대의 유일한 결혼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구약 시대의 결혼관을 알아 보기 위하여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향로의 원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창 1:26, 2:18에서 인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

오고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르다.”고 말씀하심은 결혼의 목적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헌법이다. 결혼이란 향락이 아니며 이성에 대한 농락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또한 결혼을 통해 남녀가 만나는 것을 비친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바 최초의 거룩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도 하나님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구약에 있어서의 결혼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부 일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신약시대의 결혼관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바울 사이는 구약의 창조 원리대로 결혼은 두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말했을 뿐 생육번식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① 예수님은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19:4-6, 막 10:6-9)으로 말씀하셨다. 결혼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셨다. (마 10:37, 19:20, 막 3:31-35) 또한 예수님께서는 험한 날에 대처 할것도 말씀하셨다. (마 24:19, 막 13:17, 눅 21:23)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법을 따르고 육과 정신이 함께 일체가 되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며 책임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마18:6, 10)이 예수님의 결혼관이라 볼 수 있다.

②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가운데서 출생과 번성이 결혼의 목적이란 말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가정생활의 부부 윤리, 부모 자식간의 교훈을 말하고 있으며(엡 5:31-33),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비유하여 사랑을 강조하였다. (엡 5:22-28)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몸이 된 부부는 간음, 음란, 색욕을 버릴 것(롬 1:26-27, 살전 4:3-8, 갈 5:19, 골 3:5)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엡 6:1-4, 골 3:20-21)을 권면하고 신앙의 자녀로 키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칭찬하고 있다. (딤후 1:3-6) 바울은 환난날에 대한 결혼관(고전 7:26-28)도 말했으나 이것은 결혼을 부정하거나 금욕을 의미함이 아니라 부부간의 의무와 자녀에 대한 책임 완성이 어려울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③ 베드로의 경우도 가정에서의 부부생활 윤리에 대해 말했는데(벧전 3:1-7) 부부는 한몸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책임을 강조할 뿐이다.

성서는 오늘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교회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필자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된 가족계획에 있어서도 그렇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지도를 해 주지 못하고 잠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보고도 못 본체, 알고도 모르는 체 하지는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 더 이상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되겠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다. 물론 그것이 잘못 판단될 수도 있으나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어려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율법을 중시한다거나 어떤 교리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실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의 궁핍을 같이 염려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인격적 교훈을 사회혼란과 생활안정의 요소인 가족계획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성경의 일반적 교훈은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구체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신앙 행위를 기독교적 사랑 혹은 원리에 입각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기독교의 본질과 성경의 일반적 교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취할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4. 결론 (교회의 사명)

오늘날 폭발하는 세계적인 인구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가족계획 내지는 인구정책에 따른 제반 부수적인 행위에 관하여 교회는 올바른 기독교적인 답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순결 교육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여기에 관하여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이것은 교회가 해결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의 말을 빌면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3가지로 말하고 있다. 즉, ①케리그마 (Kerygma), ②디아코니아 (Diakonia), ③코이노니아 (Koinonia) 이다.

1) 케리그마(Kerygma) —말씀 선포—

교회는 시대를 따라 변천된 사회에 속해 있는 사

람들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바른 방향제시를 해 주는 방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회는 모든 외세의 힘에 사로 잡혀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인구문제, 식량문제, 환경 오염등의 무서운 세력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체적인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디아코니아 (Diakonia) —봉사—

교회는 봉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병을 고치거나, 서로 화해하는일, 아픈자의 상처를 싸매 주고, 갈라진 곳에 다리를 놓고, 어떤 유기체의 건강을 회복케 하는 일들이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말이나 글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가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는

성경에 구체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신앙행위를 기독교적 사랑 혹은 원리에 입각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며, 건강하고 풍부한 이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코이노니아 (Koinonia) —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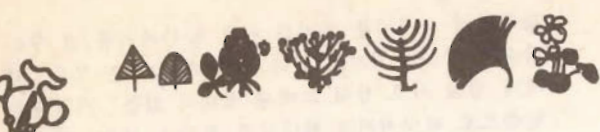
또한 교회는 교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즉 교제를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황하는 인류에게 「참 소망」을 제시해주는 일이다.

신학자 에벨링 (G. Ebeling)은 교회의 이상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극복함으로, 깨끗한 자와 깨끗치 못한 자의 차별을 극복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급증하는 인구문제로 인한 생활고와 사회적 혼란으로 앞으로 다가올 현대적 위기에서 인간 기본적인 존엄성과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모색하는 새 시대의 종말론적 공동체 (Eschatological Community) 를 형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사회와 더불어 높이 쌓았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보다 풍성한 삶, 내지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반 상황을 분석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며 책임이라 하겠다. (*)

20년후의



교회의 집사가 될 터

저는 이 다음에 자라서 육군 대장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면 내힘으로 일본 군사를 우리나라 군사하고 사이좋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자라서 교회의 집사가 되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고야 말겠습니다..

윤 성 원 <유년부 3년·남>

목사님이 될 것이다

나는 20년 후에는 목사님이 되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어린이가 되겠다.

나는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가 되겠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다.

박 경 현 <유년부 3년·남>

아프리카에 간호원으로

어느 밀림속, 간호원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20년후의 모습이다. 나는 간호원이 되어 선교공부를 하고 아직도 미개한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노 혜 영 <초등부 6년·여>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내가 20년후면 33살이다. 그때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님의 교회에서 산돌이 될 것이다.

황 옥 수 <초등부 6년·여>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나는 29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나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선생님이 되어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마 미 경 <유년부 3년·여>

훌륭한 천문학자가

20년 후에 나는 훌륭한 천문학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해와 달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연구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신비로움과 함께 그 세상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박 이 경 <초등부 6년·여>



나의 모습은 ?



신학박사가 되어

나는 20년 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목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이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 박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내 나이가 33살 중년층이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린이를 매우 사랑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김 창인목사와 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어, 부모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구약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김 승 태 <초등부 6년 · 남>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여러 교회들을 돌겠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를 많이 지으며 서로 도와 가며 살게 하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을 잘 다스리겠다.

또 우리나라를 무지무지하게 발전시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겠다.

이 영 준 <유년부 3년 · 남>

북한 선교사가 될터

나는 20년후면 엄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통일이 되어서 나의 소원인 북한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어 북한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북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쁜 소식일 전할 것이다.

김 양 선 <초등부 6년 · 여>

엄마가 되고, 교사가 되어

20년후에 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둘, 딸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남편은 교회도 잘 다니고 회사에도 잘 다니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딸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천국의 일꾼으로 만들겠다.

김 부 선 <유년부 3년 · 여>

노벨 상을 받는 과학자가

나는 20년후에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되겠다. 세계적인 과학연구소를 세워 나는 소장이 되겠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실험기가 모자라면 얼마든지 빌려 주겠다. 그리고 교회에도 교육연구소를 만들어 재미있고 유익한 충현 주일 학교를 만들겠다.

박 대 권 <유년부 2년 · 남>

의사가 되어 선교

나는 20년후에 선교사가 될 것이다. 또 의사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맡은 바 선교사업을 충실히 할 것이다.

정 성 도 <초등부 5년 · 여>



어린이날에 띄우는 우리들의 편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 주서요

하나님 안녕 하세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논현동에 새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하루 속히 짓게 해 주서요.

우리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역자님들이 계시요. 우리는 이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며 주님의 화원의 꽃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자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쁜짓을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고 귀여운 꽃이 되게 해 주서요. 저는 믿음있고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김 은 경 (초등부 6년 · 여)

목사님께

어린이를 잘 보살펴 주서요

충현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께 초등부 5학년 소녀가 글을 올리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을 위하여,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애 쓰시는 목사님께 감사 드려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충현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아껴 달라는 부탁이에요.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을 우리 충현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래요. 좀 당당한 말 같지만 양해 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늘 건강하셔서 우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요. 안녕히 계세요.

오 은 영 (초등부 5년 · 여)

전도사님께

친구들이 불쌍해요

전도사님 저희를 위하여 수고 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셔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 무럭 무럭 자라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나가면 옆에 있는 동무가 괴롭힐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꼭 참아 마귀를 이겼어요. 어떨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반

친구들이 불쌍해요. 죄악에 빠져 가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회개도 안하는 우리반 친구들에게 진도를 해서 이 친구들을 다 구해 내야 하겠어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전도사님을 위해 더욱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몸 전 강하시기를 기도해요.

최 은 영 (초등부 5년 · 여)

아빠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아빠께 띄웁니다.

아빠! 사람은 무척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아빠도, 저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무섭고 더럽고 추한 죄를 말이에요. 이 죄를 용서 받지 못하고 이 죄에 쌓여서 언제까지나 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무서운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를 주님께 회개하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무서운 지옥물에 던져 지게 되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아빠!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 오세요. 이 무섭고 어두운 죄의 길을 더 걷지 말아 주서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축복 받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 주





님의 아들이 되어 주서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빠께 임하
시길 바랍니다.
박 은 영 <초등부 6년·여>

엄마께

엄마가 최고로 좋아요

엄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
가 저는 참으로 좋아요. 엄마가 언
제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좋아
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최고로
좋아요.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처럼 부드러
운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기도
해 주시는 엄마이기에 저는 하나
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엄마! 저는 늘 엄마의 말씀을
생각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작하고 즐거움과 건강하게 자
라라."하신 말씀을 저는 꼭 실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와 모
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하
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딸이 되
겠습니다.

이 은 정 <유년부 3년·여>

엄마께

마음껏 뛰놀기 원합니다

올해는 세계 아동의 해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제앞에 서

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보다 마음
껏 뛰놀고 친구들과끼리 서로 어울
려 웃으면서 푸른 꿈을 키우며 살
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철 없고 어리지만, 우리들의
미래는 어른들 보다 더 넓은 것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비록 장
난을 치다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
도 매 보다는 사랑의 매를 들어 주
시고 우리들의 심정을 조금이나
마 이해 해 주셔서 우리들을 제압
하지 말고 어린시절의 추억이
언제까지나 생생하게 남을 수 있
도록 도와 주시며 미래의 푸른 꿈
을 잘 키워 갈수 있도록 도와주
서요.

김 일 환 <초등부 5년·남>

오빠에게

나를 좀 위해 주었으면

오빠는 공부나, 여러모로 봐도
다 좋아. 그런데 오빠한테 꼭 부
탁할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오빠
가 중학교에 올라 가서 교회 저녁
예배 참석이 좀 뜸해진 것 같아,
교회 저녁예배에 꼭꼭 참석 해 주
길 바래. 토요일집회는 공부 때문
에 못 참석한다고 해도 주일 저녁에
는 참석할 수 있잖아.

두번째, 오빠가 나한테 일부러
시비를 걸고 이유없이 때리곤 하
는데, 그런 짓은 삼가하고 나를 좀
위해 주었으면 해. 들어줄 수 있
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썼어, 꼭
들어주길.....

박 선 아 <초등부 6년·여>

누나에게

주일에는 일찍 일어나야해요

누나 안녕?

누나! 하나님이 만든 꽃이 피고
하나님이 만든 나무들이 파랗게
옷을 입었어요. 고모님 고모부 형
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나는 오
늘 교회 유년부 우리반에서 반장
이 되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교회 나올 수 있
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겠어요.

누나!

5월은 어린이 달이에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천국의 일꾼이 될래요. 누
나도 나같은 친구들을 가르 치지
요? 어린이 달은 더 많이 많이 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도 잘
가르쳐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
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
를 많이 사랑해 주셨대요. 참 고
마우신 예수님이예요. 누나 우리
는 일요일에 더 일찍 일어나야해
요. 교회가 멀고, 동생은해도 영
아부에서 예배보고 나도 유년부
에 가야하니깐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우
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누나 5월
은 어버이 날도 있지요. 약빠 엄
마 말씀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래요. 누나 어린이날은 형님들
과 함께 우리집에 놀러와요. 찬
송도 부르고 예배도 보고 같이 놀
았으면 좋겠어요. 누나 예수님 사
랑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
김 원 진 <유년부 1년·남>

어린이날에 띄우는 우리들의 편지

새가정 운동

오 태 용

푸른 계절 5월에 아이들을 생각한다. 프랑스 작가 「장쾅토」가 중산층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린 「무서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잡초처럼 무성해 간다. 학교를 포함, 집 밖으로 자식들을 마음놓고 내보낼 수 없는 불안한 세태이다. 선량한 학생이 매일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청소년 사회만이 아니고 기업체에 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소위 「무서운 아이들」에 속하는 패들의 몰락이 그것이다.

이 사회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세가지 교육 — 학교교육, 가정교육, 교회교육 — 에 모두 실패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교육이 지식 전달은 잘 하는지 모르나 인격교육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맛바람과 극성파와는 있어도 사랑으로 울타리를 한 가정교육은 없는 듯하다. 그러니 「무서운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싹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교육은 어떠한가. 제직들의 자녀 중에 속삭이는 애들이 많으며 전과자 중의 적지 않은 수가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니 교회교육의 성공을 말하기가 꼭스럽지 않은가.

한국 사회의 이러한 실상을 교회 지도자들은 얼마나 관심있게 보고 있을까. 교회가 뭔가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닐런지.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점은 가정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 수 있을까? 바로 「새가정 운동」을 통해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의 전제는 가정의 복음화이다.

그러나 가정의 복음화가 곧 새가정을 의미할 수는 없다. 새가정의 이념적 체제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곧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확립해놓고 「링컨」의 민주주의 이상처럼 하나님께 속한 가정, 하나님에 의해 운영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일하는 가정 (A Christian Home of God, by God, for God)의 원칙을 모든 가정들이 철저히 훈련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새가정은 이룩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들끓처럼 끈질긴 운동으로 번져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에 「새가정부」가 생겼다. 모든 남녀 젊은이들이 여기를 거쳐서 새가정 운동의 기수가 될 때 우리나라는 밝은 장래를 보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찬송가 감상 *

예수가 거느리시니

〈새 488, 합 469, 개 332〉

김 중 석 강도사

(성가부 지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가 거느리시는 가정이 되어 즐겁고 늘 태평하기를 바라서 이 찬송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거느리신다!—는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편안케 합니다. 그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 형편을 잘 아시며,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고 깨는 일부터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우리 가정을 항상 거느리신다고 노래 합니다. 폭조까지도 온 가족이 어린이 까지도 잘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박자마다 한 가사씩 붙어 있어서 마치 걸음 걸듯이 하기도 하며, 또 어린이이를 열리듯 부를 수도 있습니다. 노래 분위기는 전혀 심각하지도 않고 힘겹지도 않습니다. 밝고 편안한 찬송입니다. 기절은 똥과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3절은 신앙생활이 더욱 자라 천국의 수준에 이를 것을 노래하며 마지막 4절은 죽을 후에도 부활이 있음을 노래하는 말하자면 신앙의 여정(旅程)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시편 23편을 읽을 때 느끼는 위안과 즐거움, 그리고 용기를 이 찬송을 부를 때 마다 느낍니다.

나를 항상 거느리고

나를 친히 거느리네

작사자 길모어(Joseph Henry Gilmore 1834-1919)목사는 신학박사로서 뉴튼신학교, 로체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작곡자 브래드버리(william B. Bradbury 1816-68)는 많은 찬송곡을 지은 로웰 메이슨 박사와 같이 공부했고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이며 교사였다. 브래드버리는 음악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힘쓰는 한편 작곡하면서 많은 성가집을 내었다. 38세에는 「브래드버리 피아노 회사」를 창립하기도 했다. 길모어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의 신자들도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더라도 찬송시를 많이 썼으면 한다.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4 월 중 구입한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

1) 랑게주석-창세기 / 랑게지음, 김진홍 옮김, 백함출판사, 1979. 776p

2) 칼빈주석-출, 레, 민, 신명기 / 칼빈지음, 신교출판사, 1979

2. 사전 및 참고서

1) 포켓독한사전 / 허형근, 강두식 共編, 민중서관 1978. 1757p

2) 종합도서목록 / 종로서적주식회사, 1979

3. 어학

1) 라틴어문법 / 매제민 지음, 기독교문사, 1978. 374p

4. 성경

1) 성경에 대한 5500 질문 해답집 / 존더반출판사 편, 안혜옥, 진경희 共譯, 요단출판사, 1978. 358p

5. 구약

1) 구약성경문제집-창~열왕기 / 황태준 지음, 기독교문사, 1978. 237p

2) 구약총론 / 홍반식 지음, 성암사, 1978. 366p

6. 교육학

1) 지능은 발달한다-어머니를 위한 어린이 조기 교육법 / 베크, 조운 지음, 홍기형, 김기수 共譯, 유아개발사, 1978. 218p

2) 고집 센 아이 교육 / 도브슨, 제임스 지음, 권명달 옮김, 보이스사, 1979. 352p

3) 7 가지 교육법칙 / 그레고리, 존 M 지음, 생명의말씀사, 1979. 130p

4) 세계문학과 독서 / 모음 S. 헤세, H. 共譯, 김윤보, 김남석 共著, 새문사, 1979

7. 교회사

1) 기독교회사 / 위커, 윌리스턴 지음, 류형기 옮김, 한국기독교문화원, 1979. 731p

8. 양서

1)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 By Tharey, Joseph H. Baker Book House. Michigan. 1798. 726 p

베벌리 라하이 지음

김 의 자 옮김

어린이의 성격과 체질은 고칠 수 있다.

315 면 · 1500 면

발행처 / 보이스사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실제적인 기독교 가정 교육의 지침서들 중의 하나인「베벌리 라하이」여사의 저서인「어린이의 성격과 체질은 고칠 수 있다」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미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애정생활」과 「성령으로 사는 여성」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27년간의 목사의 사모로서의 경험을 가진 분이며 4 자녀와 손자들을 훌륭히 키워 사회에 진출시킨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자기가 체험한 자녀교육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성격을 분류하면서 그 성격에 따른 장·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키워가는 비결, 또 아름답고 훌륭한 성격과 체질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비결 등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히 제목만 소개 해 보면 (1) 좋은 아이, 나쁜 아이, 평범한 아이, (2)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조언들, (3) 아동 행동의 결정 요인, (4) 아동 체질의 12가지 형태, (5) 기저귀와 요람·숙의 자녀, (6) 개구장이신입생, (7) 국민학교 시절, (8) 10대의 자녀, (9) 완전한 아동 육아 훈련, (10) 혼계와 벌, (11) 뿌린 사랑의 씨앗의 열매.

특히 이 책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문제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참된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 격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매우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특별히 TV와 어린이에 미치는 악 영향을 세밀히 다루고 있으며, 올바른 지도법까지 제시 해 주고 있다. 또 참된 가정교육은 성경적 표준으로 볼 때 부모의 모본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가정교육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하면서,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필독서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이 양 우 전도사 <유년부지도>

애굽선교의 전망은 밝다

○○○… 세계 전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힘으로 사명 감…○○○
○○○…당할 것을 간절히 마음으로 역설하시는 애굽 주재 이연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위와 활동상황, 앞으로의 애굽선교의 전망에 대해 여쭙어 본다.○○○

한국을 떠나신 후 애굽에 정착하시시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976년 8월 6일 한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여 저를 초청한 빈센 회사에 있는 한국인교회에서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단독으로 선교의 터를 마련하려고 2개월 동안 있었으나 애굽 정부나 우리 정부 측에서 때가 아직 안되었으니 출국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받고 더 나아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그곳의 한국인 교회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아 9월 28일, 사우디를 떠나 타일랜드와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네시아(9월 30일) 들어갔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중동으로 들어 가는 길을 찾았으나 여의치 않아 1977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를 떠나 싱가포르 와서 중동길을 찾았으나 역시 어렵게 되어 애굽으로 들어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선교부와 선교사를 찾아 호소를 하고 애굽에 편지를 해놓고 태국으로 와 있다가 애굽에 3월 12일에 들어갔읍니다. 막연히 들어 가서 정착의 길을 찾기 위해 많은 고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지요.

애굽의 현지 상황과 선교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애굽은 무슬렘이 국교이며 기독교 선교사의 입국은 반대하는 나라이며 북한과의 국교가 밀접하나 남한과는 이제 조금씩 열려가 하는 상태의 나라입니다.

활동 내용은 첫째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1863년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선교사 요한 햅(Dr. John Hagg) 박사에 의해 설립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유일한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애굽의 가난한 농촌과 사막 동리에 성경을 보급하고 지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교회를 하나밖에 못세웠는데 앞으로는 지교회의 활동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재정 후원을 받아 농촌과 사막 동리에 지교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째는 북한선교를 위하여 터를 닦고 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공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부를 찾아 보는 일과 신학교, 애굽인 교회, 카이로 한인 교회에서 대공선교의 시급성과 북한선교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뜻있는 사람을 모아 기도모임을 갖고 대공선교에 사명이 있는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주어 사명감을 돈독히 하고 북한선교에 대해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시키며 제 3국 선교사(공산권 입국가능 선교사)에 이를 권유하여 가능하면 한국에 북한선교회와 관계를 갖게 하는 일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료수집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민이 11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공무원, 상사직원, 유학생, 은행원, 토건회사직원 기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가 3년 이내로 일시적 거주자들입니다. 현재 교회 출석인원은 어른이 15~20명 어린이가 13~15명 정도이며 매주 오후 3시 30분에 마더 인터네셔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지원의 애로점과 목사님 자신의 선교활동에서의 애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총현지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선교동향이 어떤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이며 호소력있게 구체적인 기사를 실어 주셔서 활동 상황과 현지의 어려움을 지면으

로나마 나누어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자신의 애로점은 처음에 그들을 이해 못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 졌지요. 그러나 지금도 애로점은 내가 애굽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애로점입니다. 시골에 가서 나키와 빈대 벼룩과 같이 자게 되면 자야 할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두번째는 애굽인들이 너무 우월감을 갖고 있기에 동양 선교사로서의 접근이 어렵고 세째로는 미국 선교사는 매개물(병원)을 갖고 선교활동을 하나 우리의 경우는 입으로만 선교를 하니 매우 어렵습니다.

애굽 선교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첫째는 신학생들을 잘 길러야겠고 두번째는 교회 나오는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 활동적이며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로 키우면 전망이 밝다고 보아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지요. 또한 신학생들을 키워 사명감을 갖고 시골 지교회에 가서 사명 감당토록하는 훈련을 시켜 활동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교회를 여러 곳에 세워 지도자를 파견하여 복음 전하게하고 1년에 몇번씩 교역자를 모아 특별훈련도 하고 순회하면서 선교활동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뿐만 아니라 중동선교를 위해서도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지요. 중동에 있는 선교부와 연락하여 유능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켜 다시 중동으로 보내어 선교활동을 하게 하고 아프리카 전역도 선교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선교에 뜻을 두신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비전(Vision)을 주신다면?

선교지역은 세계전역이 선교의 영역이라는 것을 믿고 그와같은 꿈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언어를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곳에 가든지 그곳의 언어를 해야 선교가 가능하므로 세계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만큼 언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을 위한 유능한 선교부에 협조를 구해 우리 선교부의 젊은 유

능한 선교사를 그 선교부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하여 훈련을 받은 후 같이 활동을 하거나 별도로 우리 선교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선교도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의 꿈이 있는 학생들을 언어교육을 시키고 고생하는 훈련부터 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야말로 어디에 갔다 떨어뜨려 놓아도 알아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유격훈련을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뼈저리게 고생을 하



지 않았기에 선교사로 와서 많은 고생과 뼈에 사무치는 어려움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가족사항과 일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와 처는 세딸이 있습니다. 처는 신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7살, 5살, 3살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 오후에 오게 되고 저와 처는 학교에 나가게 되지요. 금요일에서 주일까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과 지교회 일과 아이들과의 시간을 갖기도하고 손님접대를 하지요. 찾아 오시는 분이 쉬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날에는 한인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먼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 1주일에 한번 만나는 사람들과 점심이나 같이 할 수 있게 주일 오후에는 매주 식사 파티를 열고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요.

바쁘신 중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



조 현 명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장)

하나님의 말씀(명령)으로 천지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제2일에 물과 궁창을 만드셨다. 성경에 보이는 맨 처음의 물은 「창1:2」에 하나님의 신(神)이 그 위에 운행하시던 수면이고 다음이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인 기사이다(창1:7).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아직 생물들이 살만한 조직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물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신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정돈된 세계를 이루셨으며 구름과 같은 뽕뽕한 수분으로 싸여 공간이 없었던 땅이 그 수분의 일부가 영기어 굳어져 땅으로 내려 가고 일부는 증발되어 올라감으로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은 도처에 존재하는 무색(無色), 무취(無臭)의 액체(液体)이며 생물(生物)의 생존에 있어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증진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임과 동시에, 사회활동을 경영함에도 불가결한 것이라는 깊은 음료수나 식물(食物)로서 섭취되어 생리학적인 역할을 하는 외에 취사(炊事), 세탁, 입욕(入浴)을 비롯해서 청소소화(消火), 공장용수 등의 모양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물의 사용량의 다과(多寡)는 문화생활의 레벨을 표시하는 지표(指標)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물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반면, 전염병이나 유독(有毒) 물질의 매체로서 건강의 장애와 질병을 야기시키거나 혹은 원자력 이용에 의한 방사능화(放射能禍), 농약 사용과 산업폐액(産業廢液)에 의한 하천(河川)과 지하수의 오염(汚濁) 등, 생각지 않은 유해작용(有害作用)과 위협(威脅)이 인류에 미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영어의 Water란 단어는 물, 물약, 빗물, 비, 눈물, 침(唾), 땀, 오줌 등의 뜻으로 쓰이고 복수형으로는 홍수(洪水)의 뜻이 있으며, 가끔 바다, 강, 호수, 파도, 조수(潮水) 광천(鑛泉) 등의 뜻으로 쓰인다.

「팔레스틴」에서는 비오는 계절과 가무는 계절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 하도 길고 지루하여 「팔레스틴」에서는 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다. 고대에는 천연적

인 샘과 우물이 족족의 소유로 되어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우물밭 발견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며 반가워할 복된 일이었다. 또한 그것이 가끔 부족간의 싸움의 목적물이 되기도 했다.

생명을 주고 기력을 더해주는 물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기에 적당했다. 그러나 그 유동성을 빌어 연약함과 불안정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물은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였다. 여기에서 물은 영혼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의 상징으로 했다.

성경에는 물이 고이는 곳으로 샘, 호수, 우물, 강, 바다, 구름 등이 있으며 증기가 되어 구름에 오르고, 비가 되어 구름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다.

오늘날 「아라비아」인들이 샘을 '아인=눈(眼)'이라 부르는 것은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는 그것이 생활 조건의 안목(眼目)이던 것을 의미한다.

샘이야말로 귀중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도로나 시골이나 샘 가까이에 마련되었다. 「에루살렘」은 「기혼」(Gihon)의 샘 가까이 건설되어 있다. 「사마리아」성 밖에 '야곱의 샘'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요4:6」에 보인다.

비유적으로 샘은 축복의 근원,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회복과 생기를 주는 것으로 되고 한편 하나님은 '생명의 샘' '모든 선한 것의 근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도 생각되었다.

「팔레스틴」에는 건조기 여름과 우기(雨期)인 겨울이 있을 뿐으로 겨울이 끝난 5월 중순에서 10월말경까지 아주 비를 구경할 수 없다. 5월말경 밀 거둘 때에는 때로 뇌우(雷雨)가 있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특별한 예외이다. 이 시절은 3기로 나누어 ① '이른 비(前雨)'는 10월말에서 11월에 걸쳐 내리고 흙을 부드럽게 하여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비는 가을 비(秋雨)라고도 한다. ② 겨울 비'는 12월 중순에서 2월말에 걸쳐 내리는 비로 가장 많이 내리고 지루하게 내린다. ③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은혜의 비라고 한다. '봄비'라고도 부른다. 이상의 사실에서 적당한 때의 적당한 양의 비는 하나님의 축복, 폭우(暴雨)는 형벌로 알았다.

비오는 철에 비가 심하게 늦어진 경우에 「팔레스틴」의 농작물은 감수되고 아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飢饉)이 온다. 또 늦은 여름에는 '여름 가뭄' 때문에 큰 강이 다 말라버린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89퍼센트가 산소(酸素)이고 산소는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로서 인체의 약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호흡하는 공기에는 약 20퍼센트의 산소가 들어있다. 심지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 대부분이 산소로 되어 있다. 즉 지각(地殼)을 구성하고 있는 3대요소(반토=礫土, 석회암=石灰岩, 석영암=石英斑岩)의 거의 절반이 산소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물물의 종류에는 간사하고 악독한 자의 계획적인 연극의 눈물, 약자가 홀리는 증오와 저주가 포함된 살인적인 원망의 눈물, 신병(身病)과 실패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살적인 낙심의 눈물, 육체의 고통의 눈물, 이별·사별에 대한 인정·동정·슬픔의 눈물,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려 용서를 받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복을 계속 받는 회개의 눈물, 은혜 중만하여 충성의 힘이 되는 감사의 눈물, 성공의 주춧돌이 되는 결심의 눈물, 죄를 지고 죽을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죽을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눈물, 죄악에 빠져 망할 것을 생각하시고 우신 가련한 눈물, 그밖에 기쁨의 눈물 등이 있다.

사람의 눈물은 사람이 먹기 거북한 물질이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일종의 효소인 「라조지임」이란 효소를 함유(含有)하고 있으며 케니실린 발견자 「알렉산더 후레밍」박사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사람의 눈물의 주성분이 「라조지임」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사람만이 「라조지임」이 함유되어 있는 순수한 눈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하천수(河川水), 호수수(湖沼水), 지하수, 해수(海水) 등 각종의 형태의 물이 존재하며, 그 수질도 각각 다르다.

지구상에는 대략 $1.4 \times 10^{18} \text{m}^3$ 의 물이 존재하고, 그 물은 물의 순환이란 큰 사이클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의 과정(過程)에서 각종의 요인(要因)에 의하여 수질(水質)도 변화하고 있다. 얼마만큼의 양(量)의 물이 순환하고 있는가는 강수량(降水量)이 그의 표준이 될 것이다.

지구 전체에서의 강수량에 대해서는 많은 추정치(推定値)가 있다.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4 \times 10^{14} \text{m}^3$ / 년(年)으로 그의 약 1/4이 육지에 내린다고 하고 있다.

작년에는 48년만의 가뭄으로 우물이 말라버리며 큰 강이 30년만에 바닥이나 농민과 도시인을 막론하고 온 국민이 물난리를 겪었고 뜻하지 않은 홍수로 막대한 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72년만의 난동(暖冬)의 가뭄이 겹쳐 강물줄기의 일부가 메말라 식수난(食水難)을 겪는 지방이 생기는 반면 포근한 겨울로 해수의 온도마저 올라 해산물 양식에 감산(減産)을 염려하던 중 폭설(暴雪)과 해일(海益)은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몰아왔다.

성경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가뭄의 예언과 바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야합」왕에게 우상 섬기는 죄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하였고가 벨산에서 기도하여 비가 내린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배워 온 우리들은 생수(生水)의 효용을 모르고 있다. 끓이는 순간 물은 살균은 되지만 동시에 생명력이 없는(死水) 사수가 되고 만다. 이런 물로는 화초(花草)나 금붕어는 자랄 수 없다. 살균된 수도물을 마시는 도시인에게 는 갖가지 질병이 따르는 것이다.

미생물계에는 인간을 해치는 세균보다 생명활동을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돕고 있는 이균(益菌)의 존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인간에 대한 이균과 해균(害菌)의 비율은 약 9대1로 이균이 단연 많음을 알아야 한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생체(生體) 내부의 방어력의 「펠런스」가 큰 생명의 존재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8-39)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그들에게 번치 않음과 굶지 않음을 보장해 주시며 불결·암흑·사망 등과의 인연이 없고, 의·광명·영생의 능력이 있을 뿐이며, 성령님과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영혼과 몸을 다 함께 영생케 해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영적 육적인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 뿐이다. 성령만 채워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성령은 모든 인생의 고갈을 면케 하시며 강같은 평화·사랑·생기·신뢰·용서·감사·생동력을 주신다.

선교월보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1. 비자 연장수속을 완료했고, 외국인 주재 연장 등 일체의 연장수속을 완료함.
2. 정글순회용 인도네시아어 성가 카세트 제3집을 제작 중에 있음.
3. 정글선교를 위해 3월31일 13명의 원주민 전도인이 15개처를 개척 중

*기도제목

1. 비자연장을 받은 이 때에 복음사역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홍콩-홍종만 선교사

1. 중국 천진에 거주하던 이용씨 일가족을 초청하여 중국실정에 대해 대담함
2. 매주 월요일마다 사업가 중심의 조찬기도회를 가짐.
3. 총회선교부 주관의 제2회 동남아선교사 세미나 장소를 예약(모리슨 하우스)
4. 선교사와 가족의 비자 80년 3월까지 연장받고 이에 수속완료
5. 홍콩 시내 노방전도
6. 인도네시아에 선교현금 H\$ 2,550 송금

*기도제목

1. 선교사와 자녀 교육문제
2. 중국 대륙선교를 위한 준비



〈애굽 농촌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애굽-이연호 선교사

이선교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 한인교회 선교대회(4월18일~22일)에 참석차 4월14일 일시귀국. 그동안 4월16일~20일 대구집회(북한선교회 주최), 4월22일 주일 오전설교 및 4월24일~27일 상주집회(북한선교회) 그리고 5월1일~5일 본 교회에서 애굽 선교활동에 관한 보고 및 간증을 내용으로 한 부흥회를 인도했다.

*기도제목

1. 본국에 일시 귀국한 이선교사를 위해
2. 사도님의 건강
3. 자녀들의 교육문제

서독-육호기 선교사

1. 전교인 성경읽기 운동전개 ① 성경책 갖기 운동 ② 매일성경읽기 ③ 금요성경공부에 참여 등이다.
2. 교인들 직장으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배 및 심방을 실시
3. 순회예배 실시-비스바덴에서 약230km 떨어진 빠드린·등겐에 가서 예배 인도함

*기도제목

1. 한인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2. 유럽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호주-김태현 선교사

1. 달라스·버크홀에서 선명회 합창단 공연에 참석 격려함. 이들을 초대하여 예배 및 저녁식사와 특별순서를 가짐
2. 성례식 준비를 위한 예비학습을 가짐.
3. 가정심방
4. 차량의 고장으로 수리하다(AU\$ 1,150)

*기도제목

1. 한인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2. 태평양권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3. 차량 구입을 위해

일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1. 교회 주요 일꾼이던 다스미의사 파라과에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림
2. 교회 헌당예배 드림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3. 간호원과 입원환자에게 전도
4. 교회부흥과 교회의 일꾼을 위해 새벽 기도회를 시작(4월12일부터)
5. 앞으로 3년 더 체류연장 받음

*기도제목

1. 매일 수술과 격일 숙직을 하는 등 바쁜 나날 속에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복음사역을 위해
2. 전도의 결신자들이 교회 출석하도록

서독-박용삼 평신도 선교사

*기도제목

1. 박선교사님의 연구과정을 위해
2. 가족의 건강을 위해

원주민 선교를 위한 현지의 노력들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1. 1978년 4월(제1회 총현선교대회) 이후부터 정월선교를 위해 원주민 전도인을 훈련 파송한 결과 작년 한해 137명의 결신자를 얻는 놀라운 보고이며, 79년 3월31일 현재 13명의 전도인이 15개처를 다음과 같이 개척하고 있다.

- ① 판 데 얀지역 : 수프요 전도사
- ② 끝 로지역 : 레위·야민 전도사
- ③ 워노기리지역 : 마르판트 전도사
- ④ 수프레조지역 : 레위·야민 전도사
- ⑤ 롬봉마스지역 : 요욕 전도사
- ⑥ 시도물요지역 : 수나르디 전도사
- ⑦ 뿌차왕 지역 : 수와디 전도사
- ⑧ 워노사리지역 : 수프요 전도사
- ⑨ 무 더 한지역 : 엘리오 전도사
- ⑩ 스 라 겐지역 : 파리바바 전도사
- ⑪ 두꾸팔릴지역 : 무칸도 전도사
- ⑫ 꼬 로지역 : 수원도 전도사
- ⑬ 계등도워지역 : 무르디안 전도사
- ⑭ 시리아리아지역 : 탐뽀볼론 목사
- ⑮ 수디모로지역 : 수프요 전도사

2. 현지에 교회건축및 보조 : 작년에 4 곳.
3. 순회집회인도 : 작년에 5 회 실시
4. 현지 신학교에 장학금지급 : 작년에 4 곳

5. 인도네시아어 성가카세트 제작 : 제3집

*기도제목

원주민 전도자의 훈련을 위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겠다. 전도인 1명 훈련시키는데 월 \$ 30

홍콩-홍종만 선교사

중국대륙 선교를 위하여 이제까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오고 있다.

1. 선교단체 방문및 제후(단체이름과 책임자)
 - ① 차이나리서취 센터
 - ② 중국신학연구원 : 조나단 차우목사
 - ③ 국제신앙선교회 : 영영택목사(간증지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함)
 - ④ 아시아선교회 : 카우프만박사
 - ⑤ 세계화교선교회
 - ⑥ 노르웨이선교회 : 에스페그룬목사
 - ⑦ 크리스찬센터 : 총무 설통기씨
 - ⑧ 중국종교문화연구원 : 피터리 목사
 - ⑨ 천인신학원 : 소파양목사
 - ⑩ 중국세계복음선교센터 : 총무 황영신목사
2. 중국대륙선교자료수집
3.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면담
4. 중국대륙 선교에 뜻을 둔 홍콩신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예정
5. 대중공방송전도에 협조 : H \$ 300
6. 중국대륙에 구제품 발송이 허락이 되어 옷 속에 전도지를 넣어 보냄

*기도제목

1. 현대 중국어판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후원하자. (1권당 \$3)
2. 구제품 보내기 운동
3. 트랜지스터 보내기 운동 : 중국대륙에서 한국의 K.B.S 나 아세아방송등이 명확히 들린다.
4. 중국어와 영어교사를 훈련하여 보내자.

애굽-이연호 선교사

애굽전체 인구의 40%가 기독교 인구이고, 이중 6~19%가 교회출석 인구이나 이들은 이름만의 신자다. 그러므로 애굽 원주민 선교의 지름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정예부대로 훈련시켜 40%되는 기독교인구 속으로 파송시키는 데 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애굽 농촌에 지교회를 설립하여 원주민 전도인을 훈련 파송하는 방법과 아라빅 성경을 농촌에 보급하는 방법등이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자. 원주민 1인 훈련하는데 월 \$ 100소요.

구역공과

...지난해부터 구역 예배 시간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시에 사용하는 성경공부 교 인 이 구역
...공과는 7년 과정으로 창세기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제21과 번제 (燔祭)

읽을 말씀 : 레 1 : 1-17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보여준다.
① 희생과 제물을 통하여 (1-7장)
② 제사장의 중재를 통하여 (8-9장)

1 장에서는 희생과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중 하나인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번제란 “올라간다”는 뜻인데 온전히 헌신함을 의미한다.

1. 소의번제 (1 : 3-9)

① 바칠 짐승은 수컷이어야 한다. 수컷은 강한 동물이다. 황소의 뿔은 힘의 상징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멸망당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롬 1:16, 고전 1:18) 상징하는 것이다.
② 제물은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 중 최고의 것을 예물로 원하신다.

드리는 예물이 소의 경우에는 “흠 없는 수컷” (3절)으로 드려야 하며, 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0절) 값이 싸거나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이 비싸고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최상의 것 중에서 최고의 것” 그것이 합당한 예물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토지중의 첫 소산을, 우리 생애의 황금시기를 최고의 애정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비열한 봉헌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즐겨 바치는 것을 기뻐하신다. (고후 9 : 7) 자기도취에 빠지거나 소유중의 여분을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자. (말 1 : 6-14)

2. 새의번제 (1 : 14-17)

부한 자들은 흠없는 소의 수컷으로 드렸으나 가난한 자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게 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예물도 긍휼하게 열납하신다. (9절, 13절, 17절) 고대 동양의 군주들은 신하나 제후들이 만족할 만한 예물을 갖고 가지 않으면 그것

을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한 자의 합당한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사 55 : 1-3, 요 7 : 37)

가난한 자들이 드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도 뿔이나 굽이 달린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막 12 : 33)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그 행동보다는 그 정신에 있으며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의 여유있는 돈보다는 과부가 두렷돈을 성전 연보케에 바칠 때에 더욱 기뻐하셨다. (막 12 : 41-44)

3. 번제가 주는 교훈

번제는 4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조직되어 있다.

① 제물의 봉헌 (3, 4절) ② 제물의 희생 (5절) ③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봉헌 (5절) ④ 완전한 소각 등이다. 이와같은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복종과 헌신 그리고 전 생애에 대한 전적 포기등을 가르친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도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바쳐진 제물의 생명은 바친 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바치는 자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것도 이와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이다.

이와같은 번제가 주는 신비적 교훈은 ① 대속 교리 또는 대속 고통 ② 피흘림이 없는 열납이 없음 ③ 자신의 생명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한채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필요성 등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와같은 모형의 완전성은 그리스도의 전적 순종에서 발견된다. 인간으로서, 공생애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바친 것 등에서 온전한 원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 : 5)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므로 성립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소유 전부를 제물로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칠 때에 자기 자신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구역예배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또한 7, 8월과 12...
1·2월은 모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구역예배는 1년에...
15~16회 드리게 됩니다. 각 구역에서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며 모여 성경 공부에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공과

제 22과 소제 (素祭)

읽을 말씀 : 레2:1-16

소제란 말은 “선물”이란 뜻으로 과일이나 땅의 소산으로 드려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 자신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은혜스런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신 수확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아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상 29:14, 16)라고 소제의 기본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1. 소제법

소제는 고운 가루, 기름, 소금 그리고 유향을 재료로 하고, 굽든지 철판에 부치든지 해서 바쳤다. 떡의 일부분이나 첫 이삭을 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미래 생활에 대한 보증으로서 드리는 것이다. 소금은 방부제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순결성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경을 (고후 1:21-22 요일 2:20, 27), 향은 기도를 (제 8:3-4) 상징한다.

2. 소제법에서 금하는 것

① 누룩을 넣지 말라(11절) - 신약성서는 교만과 악함을 누룩에 비교하고 있다. (고전 5:6-8) 그것은 교만이 누룩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룩은 그 발효성 때문에 물질을 부패케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한다.

② 꿀도 사용하지 말라(11절) - 꿀은 육신의 정욕의 상징이다. 꿀은 입에는 향기로우나 배에서는 쓰다. 꿀은 언제나 정욕적 만족에 있기 때문이다. (잠 25:16, 27) 감각적 쾌락을 사랑함은 거룩한 사랑에 대한 대적이 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때 불결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예배를 드릴때에는 타산적이거나 정욕적 요소가 개재 되어서는 안되며 진실하고 순수해야 된다. (요 4:24)

3. 소제는 신하의 예물이다.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성을 인정하고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① 가인과 아벨의 제사-제물은 땅의 소산이든 양이든 상관없다. 그런데 가인은 위선으로 드렸고, 아벨은 충성으로 드렸다. (창 4:3-4)

② 에서에게 야곱이 보낸 예물-에서를 영주(領主)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신하의 선물”을 보냈다. (창 32:3-13)

③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갈 때에 요셉에게 바친 선물(창 43:11)

④ 사울도 선물없이 사무엘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었다. (삼상 9:7)

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마 2:11)에서는 야곱에게서 가축을 받은 대신에 그를 보호해 주었고, 요셉은 유향, 금, 꿀, 향품, 몰약과 비단 등을 받은 대신에 곡식의 자루를 주었다. 이와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순종하면 칭의를 받고, 감사를 드리면 영원한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보배피로서 우리들의 영혼을 굳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

4. 소제가 주는 교훈

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 같은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된다. (1절) 고운 가루는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는듯이 수고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인격은 실상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히 5:8-9)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인격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이다. (삼상 15:22)

②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과 같은 인격이 되어야 한다. (4절) 즉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히 9:23)

③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같은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한다. (13절)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비유하는데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그 뜻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을 지켜 변함이 없어야 된다. (제 2: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 6:24)

* 구역 소식 *

성경통신 4 월호

모 범 답 안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라		36	에발산	
2	둘로쳐 죽이라		37	X	
3	다		38	하나님	
4	라		39	은혜	
5	23:1-6		40	나	
6	○		41	○	
7	24:5		42	가	
8	약 5:4		43	유다	
9	나		44	단단히 붙어 있음	
10	가		45	24:15	
11	말물		46	110	
12	11		47	세째	
13	27:9		48	유다, 시므온	
14	큰 돌 위에		49	○	
15	그리심산, 에발산		50	사사	
16	가		51	가	
17	나		52	X	
18	나		53	라	
19	라		54	나	
20	X		55	다	
21	선지자		56	가	
22	다		57	마	
23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58	라	
24	요단을 건너가라		59	여호와와는 평강이라	
25	수 1:9		60	○	
26	다		61	다	
27	나		62	나	
28	가		63	가	
29	라		64	○	
30	다		65	나실인	
31	요단		66	○	
32	할례, 유월절		67	들릴라	
33	○		68	1,000	
34	가		69	라	
35	36명		70	20:17	

4 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제 1 지구

미아②구역 / 현현숙 성북구 철음동 산57번지 22/2
 삼양①구역 / 박기봉 도봉구 수유3동 176번지3호6/4
 도봉②구역 / 이말수 도봉구 미아1동 2242번지 2/4
 도봉②구역 / 안삼례 도봉구 미아1동 2242번지 2동4번
 청량리구역 / 천태혁 동대문구 청량2동 205-300호 12동
 월곡구역 / 이광원 성북구 하월곡동 90-133
 우이②구역 / 오채련 도봉구 수유리 359번지48호

○ 제 2 지구

구이②구역 / 김복화 성동구 구의동 241-2 8/1
 답십리구역 / 백선홍 동대문구 전농 74번지 9/7
 전 호구역 / 전성식 강남 천호2동 477번지 30호 23/1
 전 호구역 / 우정해 강남 천호2동 477번지30호 23/1
 왕십리구역 / 김홍창 성동구 화양2동 975-21 7/4
 왕십리구역 / 양희자 성동구 하왕십리2동 975번지 21호7/4
 전 농구역 / 박은숙 동대문구 전농1동404번지1호 27/1
 풍납 구역 / 박창하 강남구 풍납동34-태양금속공업
 암 사구역 / 김정남 강남구 암사동 APT 2동 308호
 화 양구역 / 김태희 성동구 구의동 451번지 20호
 면목②구역 / 권혁문 동대문구 면목2동 191-42번지 19/1
 왕십리구역 / 윤희중 성동구 행당동 286번지 22호
 천호 구역 / 고상구 강남구 성내동 270번지1호 10/5

○ 제 3 지구

강남②구역 / 손춘옥 강남구 반포1동 주공3단지 332동 107호
 성 수구역 / 김계순 성동구 성수동1가 656번지 143호 28/7
 강남②구역 / 송화진 강남구 신사동 485번지 20호
 선정②구역 / 이해동 강남구 논현동32가34번지
 응봉 구역 / 박규남 성동구 응봉동 198번지11호 27번 2번
 도곡①구역 / 정태식 강남구 대치동 633번지 청실APT 7동 708호
 옥수①구역 / 이현철 성동구 옥수2동 226번지3호 16/5
 옥수①구역 / 이해성 성동구 옥수2동 226번지3호16/5
 도곡①구역 / 정현만 강남구 도곡2동 도곡 APT 52동 408호
 응 봉구역 / 정종준 성동구 금호1가7번지 12/5
 선정②구역 / 고옥순 강남구 논현동32가 34번지 경복APT B 602
 잠실②구역 / 김금숙 강남구 잠실 주공 APT 216동 101호
 응봉 구역 / 황순복 성동구 금호1가1544번지3호 31동5번

○제 4 지구

상도②구역/권영필 관악구 상도 1 동 송전대 공대 근무
봉 전구역/김은희 관악구 봉천 2 동 7번지 310호 3 동 4번
회 현구역/김균분 중구 남산동 2 가 49번지 6 호
봉천②구역/임남복 관악구 봉천동 159-23번지 9/7
마 포구역/김인복 마포구 도화 1 동 352-4 16/2
필동②구역/박순지 중구 필동 2 가 106번지 8 호
인현①구역/황혜주 중구 필동 1 가 50번지 7 호 15/2
관 악구역/이재식 관악구 사당 4 동 산 14번지 18/2
염 리구역/현상식 마포구 염리동 27번지 186호 21/6
필동①구역/이병연 중구 필동 3 가 20번지 1 호
인현②구역/김복희 중구충무로 4 가 15번지 1호

○제 5 지구

남가좌구역/이달순 서대문구 북가좌동 100-315 10/3
율지②구역/안윤단 중구 주교동 268 번지
화곡②구역/손명주 강서구 화곡동 323 번지
혜 화구역/이성주 종로구 혜화동 80번지 2 호 6/2
명 룬구역/송무섭 종로구 명륜동 2 가 169번지 1 호
명 룬구역/김이진 종로구 명륜동 3 가 61-32 3/2
응암②구역/이복란 서대문구 북가좌동 3-213 3/3

새로 나오신 분은 장년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년 새신자부는 매주 오전 11시 50분에 동관 3층 장년 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 축하합니다 (4월중 결혼) *

- 임경호군(최금순권사3남)/5일 율지예식장에서
- 이희현군(이희상집사 동생)/7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 신재성군(도봉구역)/7일, 군산 개복동교회에서
- 유재일군(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17일, 연회교회당에서
- 최현자양(김용실집사 딸)/21일, 동원예식장에서
- 이용식군(제이성가대원)과 이승임양(민금행 권사딸)/23일, 본 교회당에서
- 신정길군(신영대 장로 동생)/26일, L. C. I. 에서
- 황치국군(황성례 집사조카)/28일, 진주예식장에서
- 이인범군(송경자집사 2 남)/30일, 본 교회당에서

* 위로드립니다. (4월중 별세) *

- 감금순씨(초동구역, 김인준군 모친)/27일 별세, 29일 장례

구역장 수첩④

예배모범 (2)

김재창 목사

(구역권찰회 회장)

제 2 장. 교회 회집과 예배때 행위

1. 예배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자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빈다.
2.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정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것이며 컛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결눈질이나 줄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함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것이요. 어린이들은 각기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예배회로 모일때는 당회원이 출석, 인도하라.

제 3 장. 예배시 성경봉독

1. 예배때에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와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알아 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낭독한다.
3. 봉독할 성경 장 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성한 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리하게 하지말라.

제 4 장.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를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3. 공식예배 때의 찬송하는 시간의 다소는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함이 옳다.

자녀는 부모공경, 부모는 자녀사랑

- 올 가정의 달 맞아 각종 기념행사 -

교육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선발하여 표창하며 교사와 부모님의 가슴에 꽃을 달아 드리며 청년부는 제14회 경로회를 열었고 새가정부에서는 「가정의 달 특별강좌」를 열고 있다.

올해 각부에서 선발하여 주일 학교장으로 부터 모범패와 기념품을 받게 될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모범교사: 안정숙(어새부) 김경옥(유치부), 김영근, 이진희(초등부), 백도선(장새부), 오정수(고등부), 위은성(대학부) 최명옥(선교부) 등 9명의 교사

모범학부모: 양종섭·김연순(영아부), 최영전(유치부) 등 3명의 학부모

모범학생: 남궁진희(영아부), 차인덕(유치부), 박준찬·정연택

(초등부), 임인목·노경모·강경자(선교부), 김영태·임도화 등 9명의 학생이며 이들은 모두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만한 사람으로

로 각부 지도교역자와 부장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들이다.

한편 청년부는 예년과 같이 170여명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을 초대하여 정성스런이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여 위로의 순서들을 가지고 지난 12일 유년부실에서 경로회를 베풀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해 주는 모습—유치부〉

새가정부

특별강좌 열어

주일학교 새가정부는 「가정의 달」행사의 하나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강좌를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계속 열게 되는데 4월 29일 한국가정의 윤리관(이형국 교수), 5월 6일 새가정에 있어서의 유아기의 교육(김영규 목사)에 이어 13일 새가정의 성경적 기초(윤영탁 목사) 20일 새가정의 출산관리(강신명 박사), 27일 새가정의 심리학적 기초(박성수 박사)등의 강좌를 새가정부실에서 계속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사·학생 출석동향

• 교사

3월 주교전체 평균 출석률은 97%로서 재적 465명 가운데 평균 449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볼때 출석률은 1월의 97%와 같고 교사 재적수는 445명에서 465명으로 10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생

3월 주교전체 평균 출석률은 68%로서 재적 4342명 가운데 2948명이 출석하였다. 이를 1월 기준치와 비교하면 출석률은 69%에서 68%로 1%가 떨어졌고

재적생수는 4076명에서 4342명으로 26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부별로 보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장년새신자부가 출석률이 2월에 비해 상승되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산업전도교육부, 선교부, 새가정부는 출석률이 하락되었다. 그러나 전체 평균치는 2월에 비해 5%나 증가된 6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유치부, 초등부, 장년새신자부 등의 급격한 출석률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겨울 학교 종합평가

1979년 계절학교(겨울) 종합평가가 지난 3월 26일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렸는데 이날 평가된 주요 내용은 준비, 교과내용, 계절학교 실시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이었다. 준비단계에서는 장소, 시간, 프로그램, 간식, 식사등의 문제를 각부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각부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교과내용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절학교도 주일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3년 순환의 계절학교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령부흥과 신앙 생활성장에 중점을 두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는 중등부의 의견이 가장 수긍이 가고 계절학교 실시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외형적이고 행정적인 평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피 교육자 자신이 어느정도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 및 정도를 평가하도록 이를 위해 설문이나 기타 방법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등부

영어성경반 신설

주일학교 중등부는 해외선교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훈련을 조기 실시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60여명의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반(THE FELLOWSHIP OF MESSAGE STUDYING)을 신설하고 공부 중에 있다.

수업기간은 1년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을 영문으로 암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어로 사회보는 법, 성경공부 지도법, 기도법, 영어설교법등을 가르치고 있다.

4 월의 인사이동

교사임명

어린이새신자부

장충균(남)정 교 사

유 년 부

강충구(남)정 교 사

박점숙(여)정 교 사

양영택(남)임시교사

신승균(남)임시교사

중 등 부

박성의(여)정 교 사

이상 6명 4월 24일부

교사퇴임

어린이새신자부

김현순(여)정 교 사

유 년 부

송선자(여)정 교 사

오신택(남)정 교 사

임옥만(여)임시교사

중 등 부

유재일(여)정 교 사

이상 5명 4월 24일부

교사의 기도

가장 연약한 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기억 하도록 마음을 집중시켜 주소서.

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의 초롱한 눈이 저를 바라 봅니다. 저의 생각을 순결하게 저의 언어를 진실되게 저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앞에 자원하는 심령만을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소리나는 쟁과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저의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가르칠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그들이 나를 의지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그들이 나에게서 배우오니 나 또한 당신께 깨우침을 받아 올바르게 참 된 것만을 가

르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제가 할 만한 일을 찾아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 것 없다 해도 기쁨이 기쁨으로 줄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감사·사랑·기쁨이 가득할 수 있나이다.

여기 가장 연약한 교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채워 주소서. 그리하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고귀한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귀여운 십 일명의 친구들의 자리가 빈 자리인 채로 남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소서.

최하자 선생 <유년부 교사>

우리 모두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5회 농어촌 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실시 =6월18일 부터, 기도원에서=



〈지난해의 훈련모습〉

금년제로 다섯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이 오는 6월18일부터 22일까지(4박 5일) 충현 기도원에서 열리게 된다. 1972년 농어촌교회의 주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시킴으로 농어촌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인적자원 문제해결에 힘을 쏟았던 우리 교회는 1975년부터는 보다 발전하여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를 초청하여 교육·훈련시키게 되었다. 해가 거듭 할수록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농어촌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농어촌 교회 교역자의 교육 훈련은 물론 이와같은 기회를 통하여 농어촌 교회 교역자의 목회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충현기도원에서 훈련을 하게 됨으로 훈련 효과면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를 주제로 하여 성경학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게 될 금년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의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제 5 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안내 *

1. 목 적 : 농어촌교회 교역자의 목회정보 교환 및 목회 훈련을 위함
2. 주 제 : 죽도록 충성하라. (계 2:10)
3. 주제찬송 : 405장
4. 기 간 : 1979년 6월 18~22일 (4박 5일)
5. 대 상 : 강원도·충청도·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한 본 교단 산하 전국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목사·전도사) 및 본 교회 지교회 교역자
6. 인 원 : 〇〇 명
7. 장 소 :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소재)
8. 경 비 : 숙식 제공, 교재 배부 및 교통비 지급(편도)
9. 교과과정 및 감사 :
 - ① 교회 성장의 비결
 - ② 성경 강해
 - ③ 설교의 이론과 실제
 - ④ 성경 교수법
 - ⑤ 목회 상담
 - ⑥ 구역운영과 심방
 - ⑦ 공산권 선교전략(중공을 돌아보고)
 - ⑧ 현대 신학의 동향과 비판
 - ⑨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⑩ 개인 전도학
 - ⑪ 기독교 교육
 - ⑫ 찬송 지도법
10. 감 사 : 김창인·정성구·신성종·이종윤·임승원·김재창·정상우·김종택·한영철·이준교·김중석·김영희
11. 참가신청 : 5월 20일까지
12. 신 청 처 : 우편번호-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성경학원장 귀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겨울 학교 종합평가

1979년 계절학교(겨울) 종합평가가 지난 3월 26일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렸는데 이날 평가된 주요 내용은 준비, 교과내용, 계절학교 실시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이었다. 준비단계에서는 장소, 시간, 프로그램, 간식, 식사등의 문제를 각부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조정과 아울러 각부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교과내용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절학교도 주일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3년 순환의 계절학교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령부흥과 신앙 생활성장에 중점을 두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는 중등부의 의견이 가장 수긍이 가고 계절학교 실시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외형적이고 행정적인 평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피 교육자 자신이 어느정도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 및 정도를 평가하도록 이를 위해 설문이나 기타 방법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등부

영어성경반 신설

주일학교 중등부는 해외선교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훈련을 조기실시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60여명의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반(THE FELLOWSHIP OF MESSAGE STUDYING)을 신설하고 공부 중에 있다.

수업기간은 1년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을 영문으로 암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어로 사회보는 법, 성경공부 지도법, 기도법, 영어성경본등을 가르치고 있다.

4 월의 인사이동

• 교사임명

어린이새신자부

장충균(남)정 교 사

유 년 부

장충구(남)정 교 사

박점숙(여)정 교 사

양영택(남)임시교사

신승균(남)임시교사

중 등 부

박성의(여)정 교 사

이상 6명 4월 24일부

• 교사퇴임

어린이새신자부

김현순(여)정 교 사

유 년 부

송신자(여)정 교 사

오신태(남)정 교 사

임옥만(여)임시교사

중 등 부

유재일(여)정 교 사

이상 5명 4월 24일부

교사의 기도

가장 연약한 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기억 하도록 마음을 집중시켜 주소서.

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의 초롱한 눈이 저를 바라 봅니다. 저의 생각을 순결하게 저의 언어를 진실되게 저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앞에 자원하는 심령만을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소리나는 꿩파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저의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가르칠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그들이 나를 의지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그들이 나에게서 배우오니 나 또한 당신께 깨우침을 받아 올바르게 참된 것만을 가

르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제가 할 만한 일을 찾아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 것 없다 해도 기꺼이 기쁨으로 줄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감사·사랑·기쁨이 가득할 수 있나이다.

여기 가장 연약한 교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채워 주소서. 그리하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고귀한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귀여운 십 일명의 친구들의 자리가 빈 자리인 채로 남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소서.

최하자 선생 (유년부 교사)

우리 모두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 5 회

농어촌 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실시

=6월18일 부터, 기도원에서=



〈지난해의 훈련모습〉

금년에도 다섯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이 오는 6월18일부터 22일까지(4박5일) 충현 기도원에서 열리게 된다. 1972년 농어촌교회의 주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시킴으로 농어촌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인적자원 문제해결에 힘을 쏟았던 우리 교회는 1975년부터는 보다 발전하여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를 초청하여 교육·훈련시키게 되었다. 해가 거듭 할수록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농어촌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농어촌 교회 교역자의 교육 훈련은 물론 이와같은 기회를 통하여 농어촌 교회 교역자의 목회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충현기도원에서 훈련을 하게 됨으로 훈련 효과면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제 2:10)를 주제로 하여 성경학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게 될 금년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의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제 5 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안내 *

- | | |
|---|---|
| 1. 목 적 : 농어촌교회 교역자의 목회정보 교환 및 목회 훈련을 위한 | ④ 성경 교수법 |
| 2. 주 제 : 죽도록 충성하라. (제 2:10) | ⑤ 목회 상담 |
| 3. 주제찬송 : 405장 | ⑥ 구역운영과 심방 |
| 4. 기 간 : 1979년 6월18~22일(4박5일) | ⑦ 공산권 선교전략(중공을 돌아보고) |
| 5. 대 상 : 강원도·충청도·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한 본 교단 산하 전국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목사·전도사) 및 본 교회 지교회 교역자 | ⑧ 현대 신학의 동향과 비판 |
| 6. 인 원 : 〇〇 명 | ⑨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 7. 장 소 : 충현기도원(경기도 광주군소재) | ⑩ 개인 전도학 |
| 8. 경 비 : 숙식 제공, 교재 배부 및 교통비 지급(편도) | ⑪ 기독교 교육 |
| 9. 교과과정 및 감사 : | ⑫ 찬송 지도법 |
| ① 교회 성장의 비결 | 10. 감 사 : 김창인·정성구·신성종·이종윤
임승원·김재창·정상우·김종택·한영철
이준교·김종석·김영휘 |
| ② 성경 강해 | 11. 참가신청 : 5월 20일까지 |
| ③ 설교의 이론과 실제 | 12. 신 청 처 : 우편번호-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성경학원장 귀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6 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자! 우리 모두 어디서나 전도합시다!

○○○○ 6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이다. 민족의 수난일...○○○○
○○○○인 6.25가 있는 달이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6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우리 교회 전...○○○○
○○○○교인이 6월 한달은 어디서나 전도하는 달로 정...○○○○
○○○○했다. 5천만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
○○○○도하기 위하여 온 기독교인이 힘을 합하고 있고...○○○○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
○○○○실이다. ...○○○○

○○○○ 날로 뿔어 가는 해외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 교...○○○○
○○○○인이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디든지 시행...○○○○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하겠다. 온 교인이 전도에 참여하는 6월의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
○○○○으며 온 교인의 「총동원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침과 계획을 아래와 같...○○○○
○○○○이 발표하였다. ...○○○○



1. 목적 및 방침

민족의 수난일인 6.25동란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지상명령인 민족 복음화를 단속시키는 방편으로 온 교회 성도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성도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게 한다.

2. 기 간

준비기간 : 1979년 4월 1일 - 5월 31일

실시기간 : 1979년 6월 1일 - 30일

3. 실시자

총현교회 전 교인

4. 실시 대상

전 서울시민

5. 준비 사항

1) 조직

전 교역자와 장로들이 전원 참여하도록 조직을 구체화, 세분화한다.

준비위원 / 전도위원회의 총동원 분과위원 및 각 부 지도교역자 및 전도부장

2) 대내외 협조공문서 발송

병원 · 구치소 등

3) 홍보사항

포스터 · 주보 · 월간충현등을 통하여 널리 알린다.

4) 기 타

휘장, 팻지 제작 등

6. 실시계획

1) 각부 주일학교는 6월중 1회이상 전 교사, 학생이 총동원되어 전도지 전도나 개인전도를 실시케 한다.

2) 6월 첫주나 둘째주에 방문전도를 실시한다. - 중 · 고 · 대 · 청년부 · 여전도회 · 남전도회 · 산업전도 교육부 · 산업전도회 · 제일 · 이 · 삼 · 여성성가대

3) 각부 주일학교는 6월 중에 전도반·특강을 실시하며 저녁에배시 장년중심으로 4명리 강의를 실시한다.

4) 6월중 매주 주보에 전도지 1매씩 삽입하여 오가는 길에 전도토록 한다.

5) 6월 세째주에 장년 중심으로 전체 전도를 실시한다. 이에 동원될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여전도회 - 300명, 나) 청년부 - 100명

다) 산업전도교육부 - 50명, 라) 일반교우 - 50명 등 500명을 5편대 20개조로 편성하여 전도토록 한다.

주 애굽선교사

이 연 호목사 잠시 귀국

5월 1-5일, 부흥회 인도도



주 애굽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이연호목사가 지난 4월 14일 귀국했다. 이번에 귀국은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락교회당에서 열렸던 제 1회 세계 한인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애굽 한인교회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6년 8월 6일에 출국한 2년 6개월여만에 귀국한 이

연호목사는 그동안 귀국하여 우리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설교, 각 지회의 특강,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부흥회 인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동안의 어려웠던 대 모슬렘 선교의 자세한 보고를 들으며 선교의 중요성, 어려움 등을 실감하기도 했다.

성경학교 주간반 개교

성경학원은 그동안 야간에만 운영해 오던 수업을 주간에도 확대 주간 보통반을 신설하고 지난 5월 10일(목) 개교했다.

주간반은 매주 목,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20분 (2시간)까지 수업을 하게 된다. 이번 학기의 교과과정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엠마오 성경연구(신성종 목사)
- 요한복음(정상우 목사)
- 요한계시록(김하진 목사)

당회장, 세미나 참석차 출국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5월 15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제 2회 선교사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오는 14일 출국 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홍콩만선교사의 선교활동을 돌아보며 대 공산권 선교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고 오는 5월 23일 귀국 할 예정이다.

장로 취임·장립식

21대 장로 취임·장립식이 지난 4월 30일(월) 오후 7시 30분에 교회내·외의 여러분을 모시고 베풀어졌다.

지난해 11월 12일 장로 투표에서 피선 된 고병욱장로와 신현상·김경철·우기전·손동운·노광현 집사의 6분이 취임·장립식을 가지고 우리교회의 시무장로가 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사회를, 일시 귀국한 애굽 주재 선교사 이연호 목사가 설교를, 성도교회의 강경두 목사가 신임장로들에게 권면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는 47명에 이르게 됐다.



〈장로장립식의 한 모습〉

6 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자! 우리 모두 어디서나 전도합시다!

○○○○ 6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이다. 민족의 수난일○○○○
○○○○인 6.25가 있는 달이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6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우리 교회 전○○○○
○○○○교인이 6월 한달은 어디서나 전도하는 달로 정○○○○
○○○○했다. 5천만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
○○○○도하기 위하여 온 기독교인이 힘을 합하고 있고○○○○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
○○○○실이다. ○○○○

○○○○ 날로 뿔어 가는 해외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 교○○○○
○○○○인이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디든지 시행○○○○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하겠다. 온 교인이 전도에 참여하는 6월의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
○○○○으며 온 교인의 「총동원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침과 계획을 아래와 같○○○○
○○○○이 발표하였다. ○○○○



1. 목적 및 방침

민족의 수난일인 6.25동란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지상명령인 민족 복음화를 단속시키는 방편으로 온 교회 성도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성도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게 한다.

2. 기 간

준비기간 : 1979년 4월 1일 - 5월 31일

실시기간 : 1979년 6월 1일 - 30일

3. 실시자

총현교회 전 교인

4. 실시 대상

전 서울시민

5. 준비 사항

1) 조직

전 교역자와 장로들이 전원 참여하도록 조직을 구체화, 세분화한다.

준비위원 / 전도위원회의 총동원 분과위원 및 각 부 지도교역자 및 전도부장

2) 대내외 협조공문서 발송

병원 · 구치소 등

3) 홍보사항

포스터 · 주보 · 월간충현등을 통하여 널리 알린다.

4) 기 타

휘장, 팻지 제작 등

6. 실시계획

1) 각부 주일학교는 6월중 1회이상 전 교사, 학생이 총동원되어 전도지 전도나 개인전도를 실시케 한다.

2) 6월 첫주나 둘째주에 방문전도를 실시한다. - 중 · 고 · 대 · 청년부 · 여전도회 · 남전도회 · 산업전도 교육부 · 산업전도회 · 제일 · 이 · 삼 · 여성성가대

3) 각부 주일학교는 6월 중에 전도밤·특강을 실시하며 저녁예배시 장년중심으로 4명리 강의를 실시한다.

4) 6월중 매주 주보에 전도지 1매씩 삽입하여 오가는 길에 전도토록 한다.

5) 6월 셋째주에 장년 중심으로 전체 전도를 실시한다. 이에 동원될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여전도회 - 300명, 나) 청년부 - 100명

다) 산업전도교육부 - 50명, 라) 일반교우 - 50명

등 500명을, 5편대 20개조로 편성하여 전도토록 한다.

주 애굽선교사

이 연 호목사 잠시 귀국

5월 1-5일, 부흥회 인도도



주 애굽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이연호목사가 지난 4월 14일 귀국했다. 이번에 귀국은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락교회당에서 열렸던 제 1회 세계 한인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애굽 한인교회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6년 8월 6일에 출국한 2년 6개월여만에 귀국한 이

연호목사는 그동안 귀국하여 우리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설교, 각 지회의 특강,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부흥회 인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동안의 어려웠던 대 모슬렘 선교의 자세한 보고를 들으며 선교의 중요성, 어려움 등을 실감하기도 했다.

성경학교 주간반 개교

성경학원은 그동안 야간에만 운영해 오던 수업을 주간에도 확대 주간 보통반을 신설하고 지난 5월 10일(목) 개교했다.

주간반은 매주 목, 토요일 오전 10시30분 부터 12시20분 (2시간)까지 수업을 하게 된다. 이번 학기의 교과과정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엠마오 성경연구 (신성종 목사)
- 요한복음 (정상우 목사)
- 요한계시록 (김하진 목사)

당회장, 세미나 참석차 출국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5월 15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제 2회 선교사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오는 14일 출국 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홍콩만선교사의 선교활동을 돌아보며 대 공산권 선교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고 오는 5월 23일 귀국 할 예정이다.

장로 취임·장립식

21대 장로 취임·장립식이 지난 4월 30일(월) 오후 7시30분에 교회내·외의 여러분을 모시고 배풀어졌다.

지난해 11월 12일 장로 투표에서 피선된 고병욱장로와 신현상·김경철·우기전·손동운·노광현 집사의 6분이 취임·장립식을 가지고 우리교회의 시무장로가 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사회를, 일시 귀국한 애굽 주재 선교사 이연호 목사가 설교를, 성도교회의 장경두 목사가 신임장로들에게 편면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는 47명에 이르게 됐다.



〈장로장립식의 한 모습〉

전임전도사 초빙

당회는 현재 산업 전도교육부의 부 지도로 수고 하는 유재일전도사를 전임전도사로 초빙키로 가결 하였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남전도사가 4분이 된다.



포상, 매년하기로

지금까지 교회설립 특별기념행사시 (5, 10, 15, 20주년 등)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해마다 포상 해당자에게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이미 지난 1976년부터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아 무훈으로 20년간 일한 분에게 공로표창을 하는 공로표창 제도를 제정한 바 있다.

기도회는 남성호전도사(중등부지도)가 인도했다.

연합 체육대회 실시

초등부는 운동회로

성가부(제1·2·3·여성성가대)와 주일학교 청년부·대학부의 연합 체육대회가 지난 5월 5일 한영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맘껏 즐긴 이날의 체육대회는 배구·축구등 구기종목, 달리기, 줄 달리기 등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체육대회의 종합우승은 청년부가 차지하였다.

또한 주일학교 초등부는 충무국민학교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운동회를 가지며 의미있는 어린이날을 보냈다.

야외예배 중단키로

당회는 성전 건축 및 기타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반 사항과 또한 근검, 절약하는 뜻에서 각 지회의 야외예배·친교회등을 금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권사회 철야기도회

권사회 4월 철야 기도회가 지난 4월 18일 저녁 충현기도원에서 모였다.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마친 후 교회 버스로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회를 가지며 교회의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철야

각 종 통 계

1979. 4. 1 (매월첫주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주 일 저녁예배 후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 번을 거셔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	구	분	남	여	계	신	급	교인	총세대수	3,187
회	예	주	I 부	174	342	516	신	교인	남	3,234
			II 부	443	898	1,341				
			III 부	395	804	1,199				
			IV 부	196	455	651				
	배	주	일	221	388	669	신	총수	남	1,810
			삼	126	278	404				
			어린이새신자부	44	45	89				
			장년새신자부	27	54	81				
	주	일	영 아 부	114	95	209	신	세례입교	남	433
			유 치 부	120	128	248				
			유 년 부	168	165	333				
			초 등 부	206	201	407				
	학	교	중 등 부	147	129	276	신	세례	남	267
			고 등 부	153	130	283				
			대 학 부	91	104	195				
			청 년 부	57	92	149				
	교	인	장 년 부	23	318	341	신	입교	남	695
			노 년 부	30	85	115				
			산 전 교 육 부	21	83	104				
			새 가 정 부	18	18	36				
	계	합	선 교 부	30	51	81	신	원입교인	남	681
			계	2,804	4,836	7,667				

5월의 행사



- 1 ~ 5 일 심령부흥회(강사:이연호목사)
- 6 일 정기제직회·산업전도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어린이 주일
- 11일 교회 철야 기도회(기도원)
- 12일 경로회
- 13일 남전도회·권사회 월례회
대학부 헌신예배. 월간충현 5월호 발간
- 16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20일 월간충현 편집위원회 월례회
여전도회 월례회·선교 실행위원회
재정위원회
- 21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 27일 교회성경암송대회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
산업전도회 헌신예배
- 28일 건축위원회 월례회
- 29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몇가지를 기획해 보았다.

박종구장로님의 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 꽤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정은표 집사님이 발표해 준 초등부 전체학생 심방결과 조사분석표를 보고 정리해 준 글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어느 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길 인줄로 안다.

일반 잡지 글에서 많이 보아 온 어린이들이 쓰는 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어 꽤 반가운 일이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집에서

교회의 부모들은 무엇을 느끼는지 이 달의 말씀 난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 같다. 「천국인곤」을 키우는 교회로 교회내·외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차체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며 5월을 의미있게 보냈으면 생각해 본다.

*..... 5월과 관련하여 이달호의 기독교윤리는 김하진 목사님의 「성경과 인구문제」를 특별히 청탁하여 실게 되었다.

*.....교회 밖의 독자들의 구독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관심이 고조되어 끊임없는 격려의 편지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호는 특집기사와 기획기사등으로 8면을 증면 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성원도 계속 채택질한다. 관심과 애정으로 월간충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 1979년 월간충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재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테용 이사례
주관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테용 고재원

월 간 충 현

5월호

제 7 권 통권 제 65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5월 13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준 교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 가36
267-9937·9738



기도원에서는 어떻게?

매일 한시간 이상 봉사해야

문 / 중현기도원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소절차, 원내의 규칙 규정, 교통 등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도원을 찾아 오는 분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 가짐.

기도원 전체 땅은 성지인 줄 아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란 생각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몸가짐도 단정히 할 뿐더러 말씀 한마디도 조심할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어느 때 보다 더 엄숙 경건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2. 기도원의 임소절차 및 활동

하인을 막론하고 기도원내에서는

① 먼저 본당에 들어가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② 사무실에 가서 입소 수속절차를 하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기숙사 방 배정을 합니다. (단체로 오시는 경우는 인솔 책임자만 사무실에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③ 본 기도원에 체류 중에는 매일 한시간 이상의 봉사 작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단체로 오던지 개인이 오던지 기도원 체류기간에 필히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기도원에 오시는 분의 지참물

기도원에 오시는 분이 꼭 지참해야 할 것은

① 성경, 찬송, 필기도구는 필수로 지참할 것입니다.

② 사시절 자기 건강에 맞도록 옷차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침구를 지참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④ 세면도구 및 전지나 양초와 성냥과 화장지를 지참할 것입니다.

④ 자취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기 코드 사용도 금합니다. (220 V임)

⑤ 주민등록증을 필히 휴대해야 하며 며칠 체류자는 입소 등록시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나가시는 날 찾아갑니다.

4. 기도원에서의 요망사항

① 본 기도원의 물은 전기로 생산하고 있으니

하인을 막론하고 절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빈방은 소등을 해 주시고 외등이라도 늦은 밤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나무와 꽃은 일체 손대지 말고 눈으로 보고 사랑만 합시다. 그러나 누구든지 잡초는 김을 매 주시기 바랍니다.

④ 단체로 와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나 기도원 규칙에와 성경중심이 아닐 때는 즉각 제재를 할 것입니다.

⑤ 기도원에서 모든 운동경기는 못할 것은 아니로되 건축물을 손상시키거나 파손되는 운동및 화초 및 조경식수에 지장이 되는 것은 금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⑥ 화장실은 정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⑦ 식사시간을 엄수하시고 식당 비품(물컵등)을 기숙사에 가져 갔을 경우는 반드시 식당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⑧ 기도원에서는 새벽에배와 저녁에배를 올리고 있으니 예배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도원의 교통편

① 기도원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80번지, 전화는 경기 광주 초월 14번입니다.

② 중현교회에서 일주일에 2회 교회버스를 운영합니다. (주일저녁과 화요일 저녁 8시) 이 버스는 익일 새벽 5시에 기도원에서 출발합니다.

③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이천행 완행버스를 이용하여 광주를 경유하고 「대쌍」이란 곳에서 하차하면 기도원이 보입니다.

직행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광주에서 하차하여 갈아 타셔야 합니다.

④ 서울에서 택시타고 40분 정도 걸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중현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영 철 목사 <기도원 지도>



어린이날에 아빠에게 띄우는 편지

아빠 안녕!

나 경은이에요. 예

아빠 몇 밤만자면 어린이날이 돼어요.
작년 어린이 날엔 아빠가 나에게 예쁜 인
형 선물을 주셨죠.

하지만 나는 이제 선물 안 바래요. 경
은이는 벌써 2학년 인걸요.

아빠가 경은이를 더욱 더 사랑해 주시
면 되요.

아빠! 우리 교회 선생님이 즐거운 가
정이 천국과 똑 같대요.

아빠! 나는 어린이날을 기다리며 결

심했어요. 즐거운 우리집이 되도록 예수
님 잘 믿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착한 어린이
가 될래요. 그리고 아빠 나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아빠 엄마 열심히 교회 나가시
고 큰오빠 공부 잘 하고 작은 오빠 운동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빠! 아빠도 경은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아빠! 이번 어린이 날에도 나 많이 많
이 사랑해 주세요. 아빠 안녕!
이 경 은 <유년부 2년·04>